

# 공감

2022. 07.18-24

663 호

[gonggam.korea.kr](http://gonggam.korea.kr)



## 한국문화의 매력 스페인 사로잡다

특집 코로나 시대 여름휴가 여기 어때!\_26 청와대 개방 두 달... 관람객 89% "만족"\_10 MZ세대 목소리 '청년보좌역'이 직접 듣는다\_52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8000억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_11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가 우선입니다\_18

# 과도한 의료비 걱정! 재난적의료비지원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회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소득구간별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

## 신청방법 및 기한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제외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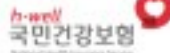
## 신청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바랍니다.

공인 홈페이지 주소 안내 | 지원도움요청서 확인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복지위원회의

# 비 오는 날의 핫도그



● 김은경 출판 기획 에디터 겸 작가

12년 차 에디터.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를 썼다.  
2022년에는 '성장'과 '실행'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볼 예정이다.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당시 만나던 친구와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핫도그가 먹고 싶어졌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한국식 핫도그가 아닌 기다란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 케첩과 머스터드소스를 뿌린 미국식 핫도그가. 당시 나는 대학가에 살고 있었고 핫도그 가게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으나 문제는 날씨였다. 각종 뉴스에서는 며칠 전부터 어마어마한 태풍이 최고 속도로 국내에 상륙 중이라며 그 위력을 경고했고 그날은 태풍이 수도권을 지나는 결전의 날이었다. 혹시 비가 잦아들지는 않았나 하여 창문을 열어봤으나 하늘에서는 비가 와르르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은 틀렸다며 창문을 닫으니 그가 말했다.

“핫도그 먹으러 다녀오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에게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는 반달눈을 하고 진심이라며 거듭되는 질문에 몇 번이고 답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남색 반바지와 진 빨강 티로 갈아입었다.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한 후 우리는 집에 있는 가장 큰 우산을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다.

호기롭게 1층으로 내려갔건만 우리는 눈앞의 풍경에 압도되고 말았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땅에서 튀어 오르는 빗물 때문에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소리였

다. “비 진짜 많이 온다”라는 말이 서로에게 들리려면 바짝 붙어 귓속말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앞에 펼쳐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서로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처마 밖으로 다리를 내디뎠다.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도 한 발짝 만에 무릎이 흠뻑 젖었다.

그와 나는 물웅덩이가 깊지 않은 지면을 찾아 뺨뺨뺨 걸었다. 하지만 그것을 발가락만 잠기느냐 발등까지 잠기느냐의 문제였다. 우리는 옆구리를 찰싹 붙인 채 이 웅덩이에서 저 웅덩이로 철썩철썩 옮겨 다니느라 더 흠뻑 젖었고 예상치 못하

게 빗물을 맞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심지어 횡단보도는 얇은 개울이 된 상태였는데 우리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이젠 진짜 망했다며 깔깔 웃었다. 술집과 밥집으로 가득한 토요일의 변화가에는 그와 나뿐이었다.

그렇게 발목까지 오는 물을 헤치며 가게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와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폭 젖어 세탁기에서 갓 꺼낸 꼴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어서 오시라는 주인에게 저희가 완전히 젖었는데 가게에서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고 주인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었다. 우리는 10분 전의 호기를 잔뜩 부끄러워하며 빨간 비닐 소파에 앉았다. 그제야 몸 이곳저곳을 보니 팔에까지 나뭇 조각과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와 나는 냅킨으로 팔다리를 대강 닦고 핫도그를 시킨 후 셀피를 찍었다. 둘 다 꼴이 말이 아니었던지라 사진을 보며 또 깔깔 웃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풍은 비만 쏟아낸 후 떠나버렸고 어느덧 하늘은 개어 있었다. 사람이 없는 정류장에서 그가 내 허리를 안으며 말했다.

“오늘 핫도그 먹으러 간 거 진짜 재밌었지?”

우리는 키스하고 헤어졌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접종 가능합니다!**

**(고령층, 면역저하자)**

**예방접종실**

**코로나19 예방접종**  
9:30~11:00  
13:30~16:00



### “50대 이상도 4차 접종 받으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7월 18일부터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 연합뉴스

## 김은경의 전략 수정

01 비오는 날의 핫도그

## 공감 포토

02 "50대 이상도 4차 접종 받으세요"

## 코로나19

06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검사·진료 병원 중심... 병상 단계적 확대

## 청와대 국민 품으로

10 청와대 개방 두 달... 관람객 89% "만족"



28

## 내 삶을 바꾸는 정책

- 11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8000억 원 규모 추가 민생대책
- 1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 18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정부 업무보고

- 20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8월 추석민생대책 발표
- 22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원전 일감 1300억 원 공급
- 23 신산업 신생기업 1000개 육성... 납품대가 연동제 추진

## 홍화정 만화\_슬기의 여유를 찾아서 ①

- 24 벤치에 앉아보면

## 공감 현장

- 40 한국의 장맛에 푹 빠진 외국인들

## 내 삶을 빛내는 문화

- 44 우리나라 매력 스페인 사로잡았다
- 46 이달의 추천도서

## 표지 이야기

### 한국문화의 매력 스페인 사로잡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와 산티아고에서 '한국주간(Korea Week)'을 열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스페인 현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 관광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7월 11일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클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 집    코로나 시대 여름휴가 여기 어때!**

- 28 / 산불 아픔 보듬고 7번 국도로 가~ 보드래요
- 32 / 여행도 하고 별자리도 보고~
- 36 / 놀거리·볼거리 풍성한 섬으로 떠나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찾아서 ①**

**드림위드앙상블**

48 편견 대신 가슴으로... 예술에는 문턱이 없다

**국민과 함께 용산시대 ②**

**역사 속 용산**

50 “한강으로 물 마시러 가는 용의 기세를 닮았다”

**청년이 미래다**

52 MZ세대 목소리 ‘청년보좌역’이 직접 듣는다

**연재\_ 독자가 추천하는 어른 그림책 ⑩**

**시인 아저씨, 국수 드세요**

55 국수 먹으며 웃을 날을 기다립니다

**연재\_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의 뮤지엄 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⑤**

56 도시를 바꾼 예술 지역을 살린 미술관

**연재\_ 한국의 멋 ⑫ 판소리**

60 양반과 서민의 문화 한데 어우러지다

**연재\_ 한국의 맛 ⑭ 물회**

62 시원한 육수에 담병

64 참여공감



40



62

발행일 2022. 07.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보균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사 부담)  
 03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1.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검사·진료 병의원 중심... 병상 단계적 확대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12일 현재

6353개에서 1만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필요 시 재가동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7월 18일부터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만 61세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4차 접종을 한 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까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12일 현재 6353개에서 1만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을 닫았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필요시 재가동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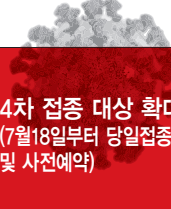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 유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처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재유행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일상적인 확산 수준에서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재유행 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음압병상도 7월 말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주요 방역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현행	변경
 <b>4차 접종 대상 확대</b> (7월18일부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만 60세 이상	<b>만 50세 이상</b>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항암, 면역억제제 치료 등)	<b>현행 +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b> (만성질환, 암, 당뇨병, 비만 등)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b>현행 + 장애인·노숙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b>
<b>해외입국자 PCR 시기 단축</b> (7월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b>입국 1일차 PCR 검사</b> (음성 확인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b>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 추가</b>	주 1회 PCR 검사(4차 접종자 제외)	<b>일 확진자 10만 명 때 주1회 PCR + 주 1회 신속항원검사(전체)</b>
<b>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b>	유행 안정 때까지 당분간 지속	

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과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개까지 확보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

일반 확진자는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한다. 위중·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 8월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와 각 시·도별 1개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예비시설로 준비한다.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운영을 검토한다.

백 청장은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유행 시에는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그동안 운영을 중단해 왔던 생활치료센터를 필요에 따라 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다시 추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현장 대응 의료인력도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유행 발생 시에는 약 1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파견 신청자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해 즉시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대응 역량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유행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 5만 곳에 10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 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다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 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심은하 기자

## 검사부터 치료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유증상·감염시 대처 요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재유행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됐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새롭게 바뀐 용어와 제도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코로나19 검사 어디서 받나?

=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최종 양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검사를 받을지 나뉜다. **방역 당국이 정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등이다.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 중이다. 7월 13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 1만 1037곳으로 포털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 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지만 의원급은 5000원, 병원급은 65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 -확진되면 어떤 치료 받나?

=PCR과 RAT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8일차 0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다.** 면역저하자에는 중앙 또는 혈액암 치료자, 폐이식 환자, 자가면역 환자 등이 포함된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는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집에 머물며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처방이 필요할 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의원마다 검사·진료·치료약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지만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처방약을 수령받을 경우 등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다른 질병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약값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 -동거인이 확진됐다면?

=동거인이 확진됐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가 돼 출근·등교가 가능하다.** 수동감시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거인들은 검체채취일(검사일)에서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길 권고한다.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를 해야 한다. 확진자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PCR 검사 결과 확인(초기 3일 이내)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 -해외입국자는 어떻게 하나?

=현재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받은 PCR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7월 14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뒤 검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 청와대 개방 두 달... 관람객 89% “만족”

## 관람객 1000명 조사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6월 22~26일 만 15세 이상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 60%, 남성 40%, 연령은 60대가 21.6%로 가장 높고 50대 18.2%, 20대 17.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0.6%,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 주요 계기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관람공간이기 때문’이 29.0%, ‘경복궁과 연계된 역사성에 대한 관심’이 11.8%였다.

관람 만족도는 총 89.1%의 응답자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청와대 경내 산책 및 조경 관람(61.8%),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 관람(28.3%) 등을 꼽았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활용·관리 방향 “원형 보존” 가장 많아

청와대 관리 및 운영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건물, 자연녹지, 수목 등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23.8%였다.

향후 청와대의 활용 및 관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



5월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대동령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현재의 역사와 국가 유산이 보존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이 22.4%,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본관, 영빈관 등 개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래 모습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건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건물은 본관(72.5%)이었고 관저(68.5%), 영빈관(60.8%), 춘추관(59.9%)이 다음 순이었다.

대정원과 녹지원 등 주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K-팝 공연 등 대중음악 공연 공간이나 전통문화 향연 공간, 야외 박람회장으로 활용보다는 ‘잔디보호를 통한 경관 보존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약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청와대 경내 편의시설 부족,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 관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시각이 아닌 관람객의 시각으로 지난 두 달 간의 청와대 관람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관람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와대가 단순 ‘공간(Space)’이 아닌 국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Place)’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8000억 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

##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7만 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 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여성용품 지원단가도 월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 에너지·문화바우처 단가 상향

문화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한다.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



서울 한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장 | 연합뉴스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료비: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17.2→18.5만 원)</li> <li>②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판매가 인하(7,900원(△3,000원)/10kg)</li> <li>③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li> <li>④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li> <li>⑤ 복지 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li> </ul>
	2 사회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한부모: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li> <li>⑦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 840→960시간)</li> <li>⑧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li> <li>⑨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li> </ul>
	3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시장진입형 117→121만 원 등)</li> <li>⑪ 근로자지원: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li> <li>⑫ 실업지원: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인상</li> </ul>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4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물량 증량(+2만 톤)</li> <li>②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10만 톤, 7.20~연말)</li> <li>③ 닭고기·계란: 할당관세 적용(8.25만 톤), 계란 공판장 활성화</li> <li>④ 국내농가지원: 성수기(7~9월)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li> </ul>
	5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감자: 7월부터 비축분(국산) 조기방출, 호주산 700톤 수입(7~8월)·공급(8월~) 및 추가수입 추진</li> <li>⑥ 마늘·양파: 비축분 7월 조기방출, 해외도입(중국·일본 등 TRQ 도입예정) 추진</li> <li>⑦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준비,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li> <li>⑧ 사과·배: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사과 65천 톤(+35%, 전년비), 배 55천 톤(+28%))</li> <li>⑨ 대파: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 적용(27→0%)</li> <li>⑩ 참깨: 중국·인도 수입의존도(80%)가 높은 참깨 TRQ 증량(6.7만 톤(+0.3만 톤))</li> </ul>
	6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⑪ 수산물 방출: 대중성 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밀착점검, 명태 등 가격상승품목은 7월부터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비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추가 확대(+500억 원)</p>
	7 식품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⑫ 분유류: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적용하여 과자·빵 등 가격인상요인 억제</li> <li>⑬ 커피원두: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li> <li>⑭ 주정원료: 조주정·매니옥칩 할당관세 적용(10→0%)</li> <li>⑮ 가공용대두: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25.4만 톤→26.4만 톤)</li> </ul>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8 유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PG 판매부과금 인하: 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인하 연장(~연말)</li> <li>②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 (1,100→1,070원/리터. ~10월)</li> </ul>
	9 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디딤돌 대출: 차주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li> <li>④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li> </ul>
	10 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및 높은 속도 지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 개소 신규구축</li> <li>⑥ 5G 중간요금제: 빠른시일 내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li> </ul>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확대하고 7월 중 7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한다.**

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배우자 단가를 올려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 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한다.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높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안정망 역시 확충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해 소득 보장금액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자금공급규모도 2241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20만 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

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2만 톤 늘려 조속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수요를 고려해 삼겹살 할당물량 2만 톤을 추가로 늘린다.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를 꾀한다. 계란은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제로 전환을 유도한다.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은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국산 비축감자는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000톤)하고 호주산 700톤은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하며 8~9월에도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마늘·양파는 비축물량을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한다. 무·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하며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산물은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 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가격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7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인당 1만 원, 최대 20%) 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확대하고 7월 중 7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

## 기간 추진한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과제

※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 생계비 경감

- ① **유류세 등:** 유류세를 법정 최대로 인하(30→37%)〈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22년말)
-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기준(1,850→1,700원/리터) 한시 확대(~9.30)
- ③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22)·친환경차(~'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40→80%),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④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1.7%)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 ⑤ **금융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20조 원) 등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 ⑥ **공공요금:** 도로·철도·우편 등은 하반기 중 동결원칙(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 ⑦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12→15%)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동주택(135㎡!)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24) 등

### 농축수산물 및 식품

- ① **수입원가 절감:**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23년까지 면제
- ② **식품품비 인하:**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추경 600억 원)
- ③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 ④ **수급조절:**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 확대

### 취약계층 지원

-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가구) 신규 지급
- ②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 인상(154만 원, 4인)
- ③ **에너지바우처:** 저소득가구 지급대상(+29.8만 가구) 및 지원단가(+4.5만 원) 확대
- ④ **금융지원:** 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 1,200만 원) 1,000억 원 확대 등
- ⑤ **고용·소득지원금:**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지원금 지원(2.1조 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 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 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 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 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추경 24.6조 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 원, 371만 개사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 원 지급
- ②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로 상향, 분기별하한액 50→100만 원으로 상향,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 ③ **긴급 금융지원:** 43조 원+α 긴급금융지원
  - 4.3조 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 원 저금리 대출전환, 최대 30조 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 기타

- ① **유통구조:**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비용상승 압력 최소화
- ② **공정경쟁:** 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혁
- ③ **재정집행:**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 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242억 원 확대한다.**

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한다.

식품원료는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자율관세적용물량(TRQ)을 증량한다.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하고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 적용한다.

주정원료는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집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TRQ를 26만 4000톤 증량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242억 원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공공와이파이는 7월부터 품질 고도화 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해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 합리적인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해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며 “부처 책임하에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 때 즉시 대응하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

한편 윤 대통령은 7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

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 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박순빈 기자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② 사회·문화·국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 전면 시행 등 사회·문화·국방 분야 가운데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서 발급, 성년 확인, 신분 확인, 계약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

5월 3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이 시작했다. 2021년 12월 21일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여권법시행령이 시행됐으나 기존 일반여권의 재고분 재활용, 소진 방안으로 일반여권도 병행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할 경우 재고 소진 시까지 기존 일반여권(유효기간 5년 미만)을 선택할 수 있다.

#### 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 전면 시행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청원 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공개 청원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법령 제·개정과 폐지, 공공 제도 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할 수 있는

며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청원이 처리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9월 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따라서 공무원과 예술지원 기관 종사자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7월 19일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수립·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 데이터(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문화재 데이터의 연계·공동 활용 사업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행정·안전·질서	
외교부	<b>중전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 시행</b> • 원하는 사람에게 재고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 5년 미만 일반여권 발급(5월 31일부터 시행 중)
행정안전부	<b>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b>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증 확인과 진위 확인 기능 제공(7월 12일부터 시행 중)  <b>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 전면 시행</b> • 청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b>현행 방법+온라인 신청</b> • 공개 청원 도입: 법령 제·개정, 공공시설·제도 운영 사항 <b>국민 의견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b> (12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b>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b> • 군인권침해사건 1년 경과된 진정은 각하→ <b>전역 후 1년 내 진정 시 조사</b> • 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 구금시설 한정 시행→ <b>직접 군부대 방문 가능</b> • 국방부 장관, 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 사실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b>‘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b> • 공무원과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금지, 예술인조항 활동 방해 행위 금지 등 <b>의무 부여</b> • 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에서 다른 예술인, 공무원과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받지 않을 <b>권리 부여</b> •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 신고 사건 조사, 구제 조치 등 <b>법적 보호 절차 규정</b> (9월 25일부터)

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지능정보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문화재 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관리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한다.

### 국방·병무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와 조직이 개편됐다. 군인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나 그중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 7월부터 증서 발급, 성년 확인, 신분 확인, 계약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담당한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MZ세대 장병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선택형 급식체계는 장병의 급식 선택권과 식단 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장병 중심 급식 조달체계를 말한다. 급식비 인상으로 선호 품목을 늘리고 채소, 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가 조달될 예정이다.

#### 입영 전 병역과 진로 연계한 상담 확대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 궁극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군 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운영했으나 7월에 부산, 춘천에도 추가 설치했다.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가입자격 확인서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 승인이 가능했는데 5월 12일부터 가입자가 나라사랑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부터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가능하다. ●

김민주 기자



#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①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1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2 보행자우선도로(지정) **추가**
- 3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②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1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2 보행자우선도로(지정)

**1, 2에서 보호자 보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 8만 원)

자료: 경찰청

### 보행자 안전 위한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시행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7월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12일 대구 5곳, 대전 3곳과 13일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를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이찬영 기자

#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8월 추석민생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8월에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계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 기업 투자·활동 막는 핵심 규제 정비

우선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

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 선박도 매일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절감한 재원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 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한겨레

**예산 절감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일자리 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 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 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경영 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도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한다. 국제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박순빈 기자

#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원전 일감 1300억 원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 3중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한다. 6월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22년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설계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을 통해 13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  
주변 세대·단지와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 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안정적인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5000억 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중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 원)의 투자에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 원)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격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성장 사다리도 복원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

박순빈 기자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 신산업 신생기업 1000개 육성...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추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신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신생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

젝트를 신설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한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 원이다.

### 9월 소비 진작 ‘대한민국 동행세일’

9월에는 전 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원 강릉 ‘커피거리’ 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지원한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중 2022년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박순빈 기자

중기부는 2022년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슬기의 여유를 찾아서 그림 홍화정

09. 벤치에 앉아보면





다시 출발하자!



산불 피해지로 떠나는 **착한 여행**  
천문대에서 즐기는 **우주 여행**  
한적한 섬에서 누리는 **쉽 여행**

# 코로나 시대 여름휴가 여기 어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년여 만에 제대로 맞이하는 여름휴가다 보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모처럼 맞은 ‘거리두기 없는’ 휴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염 우려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마땅히 갈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올여름 휴가도 피서객들이 몰리는 관광지보다는 나만의 테마 여행을 고려해볼 만하다. 먼저 지난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지역으로 ‘착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특히 강원 고성에서부터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동해·삼척·울진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7번 국도는 드라이브 명소로 꼽힌다. 산불 피해 지역 여행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엔 활동이 자유로워진 까닭에 사람의 접촉이 잦은 곳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고 맑은 물·공기를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섬에선 한결 여유 있는 휴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을 네 가지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여름 아직 휴가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첨병섬’,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캠핑섬’, 원기 회복에 필요한 건강식이 가득한 ‘보양섬’, 뜨거운 여름 바다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찰칵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와 천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별 자리를 보러 떠나는 천문대 여행을 추천한다. 낮에는 여행하며 파란 하늘과 자연을 만끽하고 밤에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별을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휴가지에서는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마련했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재유행 없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자료: 보건복지부

### 개인 방역수칙

관광지·휴가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여행 전 예방접종 권고, 증상 발현 시 가까운 병원에서 즉시 검사  
※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인근 진료기관 확인 가능

### 휴가지·휴양시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안내 등 이용객 분산 유도,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안내

###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등에 정기적 방역 조치, 주기적인 환기·소독 실시, 식음료 섭취 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안내

### 공항·교통시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활성화,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과 열차·고속버스 내 주기적 환기 실시



# 산불 아픔 보듬고 7번 국도로 가~ 보드래요

## 산불 피해지역으로 떠나는 착한 여행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겐 악몽 같은 날이다. 산과 숲, 바다를 품은 천혜의 관광지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울진·삼척)과 방화(강릉·동해)로 불길에 휩싸였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울진은 10일이 지난 3월 14일, 강릉은 90시간 후인 3월 8일 진화됐지만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 축구장(0.714ha) 2만 8744개를 모아놓은 2만 523ha에 달할 정도로 큰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본 건 불타버린 산만이 아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동해시 묵호항 등 해안가 인근 마을은 산불 이후 주민들이 떠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활기를 잃었다.

넉 달이 흐른 지금, 묵호항을 비롯한 이들 지역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관건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힘을 얻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이다. 여름 휴가철, 산불 피해지역으로 떠나는 ‘착한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특히 강원 고성에서부터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동해-삼척-울진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7번 국도는 동해안 해안을 따라 이어져 동쪽으로는 바닷가, 서쪽으로는 숲을 보면서 치유할 수 있어 드라이브 명소로 꼽힌다. 7번 국도변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한다.

### 안목 해변서 커피 한잔, 정동진서 레일바이크

강릉의 또 다른 이름은 ‘커피특별시’다. 그중에서도 500m에 이르는 탁 트인 해변을 따라 카페가 줄지어 있는 ‘안목 커피거리’는 카페의 특색을 살려 직접 원두를 선별·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솔 향, 바다 향과 어우러진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면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날릴 수 있다. 투명한 유리벽 카페, 루프톱(옥상)과 테라스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어보자. 낮에도 이국적이고 아름답지만 해 질 무렵 파도 소리와 함께 모래밭을 거닐면서 멋진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안목 커피거리에서 7번 국도(울곡로)를 따라 남쪽으로 35분 남짓 가면 정동진이다.



1 500m에 이르는 탁 트인 해변을 따라 카페가 줄지어 있는 ‘안목 커피거리’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2 새해 해맞이로 유명한 정동진역 3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교차로에서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등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4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 강릉 현화로 | 한국관광공사



강릉의 또 다른 이름은 '커피특별시'다. 그중에서도 500m에 이르는 탁 트인 해변을 따라 카페가 줄지어 있는 '안목커피거리'는 카페의 특색을 살려 직접 원두를 선별·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가는 길에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등명락가사, 고구려 때 불리던 강릉의 옛 이름을 딴 하슬라아트월드(<http://museumhaslla.com>)가 나온다. 하슬라아트월드에서는 조각가 부부가 2003년부터 33만 580㎡(10만여 평) 대지에 조성한 복합예술공간으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동진역에 다다르니 가장 먼저 상징물(랜드마크)인 절벽 위 크루즈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동진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 마을'이란 뜻의 이름으로 신라 시대부터 임금이 사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낼 만큼 자연 풍광과 일출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역사답게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주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밀레니엄 모래시계가 설치된 모래시계공원(<http://opentour.gtdc.or.kr>)은 물론 정동진 시간박물관, 정동진 해변과 해수욕장, 정동진 조각공원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정동진역-정동진 해변-모래시계공원을 지나 다시 정동진역까지 5.1km 구간을 순환하는 '정동진 레일바이크'를 타보자.



####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 현화로 드라이브

정동진에서 차로 5분이면 심곡항에 닿는다. 심곡항에서 강릉 옥계면 금진해변으로 이어지는 현화로는 국내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로 곧바로 바다와 연결돼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착각이 들게 한다. 드라마 <시그널>에도 등장했다. 도로명은 강릉 태수의 아내인 수로부인이 절벽에 핀 철쭉꽃을 원하자 웬 노인이 나타나 꽃을 따줬다는 <삼국유사>에 실린 '현화가'에서 따왔는데 아찔한 해안 절벽이 도로 옆으로 이어져 아름답기 그지 없다.

일출과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망상해변, 촛대바위와 형제바위 등 파도와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암석 기둥이 빼곡하게 솟아 있는 ‘한국의 석림’ 추암해변은 동해시의 대표적 명소다.

바다부채길이 일품인 심곡항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최근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심곡’항에서는 동해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2300만 년 전의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다. 국내 해안단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뛰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다양한 형태의 기암괴석이 솟아 있는 이곳에서는 천천히 걸어보자.

심곡항에서 울곡로를 따라 차로 5분 정도 가면 낚시 명소로 꼽히는 금진항이 나온다. 금진항 해변은 바닷물이 맑고 수심이 낮아 서핑 장소로 인기가.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한국의 석림’ 추암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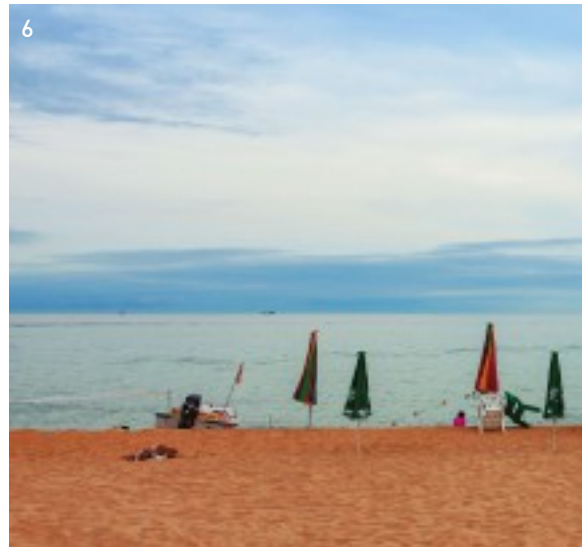
일출과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망상해변, 촛대바위와 형제바위 등 파도와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암석 기둥이 빼곡하게 솟아 있는 ‘한국의 석림’ 추암해변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일몰과 일출이 아름다운 추암해변은 추암조각공원-능파대와 해암정-추암 출렁다리-촛대바위-형제바위-추암해변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해암정은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고려 공민왕 때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지은 정자로 종종에서 관리 중이다. 2019년 만든 72m 길이 출렁다리에서는 촛대바위와 수종의 기암괴석, 해안 절경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출렁다리와 추암 해안길은 해파랑길 33코스로 확 트인 푸른 바다를 보며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추암해변은 강릉에서 삼척해변까지 53km 구간을 운행하는 바다열차 추암역과 인접해 있다. 바다열차는 차창 밖으로 동해를 감상할 수 있고 기차 안팎 디자인을 동해 풍경으로 꾸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7번 국도를 남쪽으로 타고 더 내려가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에 닿는다. 삼척시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루, 덕항산 자락에 자리 잡은 환선굴, 해안선이 절경이어서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장호항이 유명하다.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뽕족한 기암괴석이 불쭙불쭙 솟아 있는 장호항은 얇은 바다와 아름다운 갯바위가 많아 계잡이, 고동잡이, 후릿그물 당기기,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투명 카누 타기 등 다양한 어촌 체험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울진의 명소는 망양휴게소 전망대와 망양정, 왕포천케이블카, 덕구온천, 죽변항이다. 후포면으로 이동할 경우 후포항, SBS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 촬영지로 유명해진 후포리 벽화마을,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을 가볼 만하다. ●

글·사진 김미영 기자





5 쫄대바위와 형제바위 등 파도와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암석 기둥이 빼곡하게 솟아있는 '한국의 석림' 추암해변은 동해시의 대표적 명소다. 6 망상해변 | 게이티이미지뱅크 7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누리집 8 강릉에서 삼척해변까지 53km 구간을 운행하는 바다열차 9 2019년 만든 72m 길이의 해상출렁다리에서는 쫄대바위와 수증의 기암괴석, 해안 절경 등을 조망할 수 있다.

## 장마철 여행,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장마철 불안정한 대기로 폭우와 불볕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장마가 7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이 증가할 전망이다어서 여행객 스스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하천·계곡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태풍으로 물에 잠기고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 범람하기 쉽다. 기상청 일기예보, 댐 수문 방류 계획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행 도중 장마와 태풍을 만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나 실내로 이동해야 한다. 계곡과 바다에서 야영할 땐 대피 가능한 고지대나 대피로가 확보된 곳, 도로와 교량 유실 및 산사태 우려가 적은 곳을 택한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등은 장마로 산사태 확률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에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낮에는 야외 활동 대신 박물관 견학 등 실내 활동 위주로 일정을 짠다. 야외에서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마스크가 비에 젖거나 땀범벅이 되면 표면이 오염돼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는 만큼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 자주 바꾸는 것도 장마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

정부는 장마,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재해 예방과 여행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대응에 나섰다. 각 부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시·도별로 단체 소통 방을 만들어 상황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하천·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지시했다.

환경부는 6월 22일 장마 대비 홍수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홍수취약 지구 433곳에 대한 관리대책 및 홍수시 댐 운영 방안 등을 점검했다. 홍수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주민 대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응급 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와 별개로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 여행도 하고 별자리도 보고~

## 천문대에서 떠나는 우주여행

별자리, 행성, 우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와 천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천문대는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하면서 한적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족, 친구, 연인 등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낮에는 여행하며 파란 하늘과 자연을 만끽하고 밤에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별을 감상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여행도 하고 별자리도 보고~” 감성 충만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올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 보러 떠나는 천문대 여행을 추천한다. 여름철 가기 좋은 천문대 5곳을 소개한다. ㉠

글 김미영 기자, 사진 각 천문대

### 1 별빛이 흐르는 영월 별마로천문대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마루)’이라는 뜻을 담은 별마로천문대는 연간 쾌청 일수 192일을 자랑하는 해발 799.8m의 봉래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민간 천문대 가운데서 보유한 망원경 수나 수준이 가상 우수하며 천체투영과 천체관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별 관측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천체투영실에 설치된 투영기는 8.3m 돔 스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해 날씨에 상관없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9500여 개 별 표현, 별자리 찾는 방법, 로마신화 등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지름 800mm 주 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 망원경을 설치해 달이나 별, 행성을 볼 확률이 높다. 주 관측실과 보조 관측실을 갖춰 해, 달, 성운, 성단 등 다양한 관측이 가능하다. 천문대 관측과 가상현실(VR) 체험, 패러글라이딩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특히 천문대가 위치한 봉래산 정상에 활공장이 있어 낮에도 넓은 시야로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영월읍 야경이 천체관측과 함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영화 <라디오 스타>,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이다. 천문대에서 보는 별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을 배경으로 가라앉은 일몰 또한 절경이다.



별마로천문대



문의 033-372-8445

누리집 <https://www.yao.or.kr>

주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이용 시간 (사전 예약 필수, 월요일 휴무) 하절기(4~9월)

15:00~23:00, 동절기(10~3월) 14:00~22:00

이용 요금 어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5000원



국토정중앙천문대

## 2 중심에서 하늘을 보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우리나라 중심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궁금하다면? 한반도의 중앙 경선과 중앙 위성 교차점 인근에 있는 국토정중앙천문대를 추천한다. 쏟아져 내리는 비무장지대(DMZ)의 별을 고스란히 관측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800mm 나스미스식 반사망원경으로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태양 관측이 가능하다. 여러 대의 천체망원경이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흐린 날에도 '가상'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 영상관, 전시실, 전망대를 고루 갖춰 지루할 틈 없는 체험이 가능하다.

국토 중앙의 밤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헤아리며 잠들 수 있는 캠핑장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빛 공해가 없는 천문대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쏟아지는 별은 물론 운이 좋으면 은하수와 찬란한 혜성을 만날 수도 있다. 매달 20일 다음 달 예약을 진행한다. 취사용 작은 불은 가능하지만 캠프파이어 같은 큰 불은 피울 수 없다. 잔디 구역과 데크 구역 각각 19개의 캠핑 구역이 있으며 이용 요금은 2만 원(비성수기 평일 1만 8000원)이다.

캠핑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20여 분 걸으면 900m 거리에 '한반도 배꼽점'으로 불리는 국토 정중앙점이 있고 차로 10~20분 거리에 한반도스카이(집라인), 한반도섬, 양구수목원, 박수근미술관, 국립DMZ자생식물원, 양구백자 박물관 등이 있어 함께 관람할 것을 추천한다.

**문의** 033-480-7257

**누리집** <https://www.ygtour.kr>

**주소**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로 127 지구 과학관

**이용 시간** (월요일 휴무) 하절기(4~9월) 14:00~23:00, 동절기(10~3월) 13:00~22:00

### 3 별에 빠진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뒤쪽 덕음산 위에 있는 이곳은 수백 년 전 춘향과 몽룡이 함께 감상했을 남원의 밤하늘과 몽룡별(목동자리), 춘향별(처녀자리)을 볼 수 있다. 주 관측실, 보조 관측실, 천체투영실, 항공체험실, 전시실, 교육실 등을 갖췄을 뿐 아니라 600mm 규모의 주 망원경, 350mm~125mm 까지 다양한 구경과 방식의 망원경을 구비하고 있다.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아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체험을 신청해야 7m 원형 돔과 대형 천체망원경으로 우주 쇼를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재미있는 해설은 덤이다. 야외 광장에 F-4D(팬텀), A-37B(블랙이글) 전투기를 전시하고 1층 로비에는 모니터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직접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봇이 있어 색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2021년 10억 원을 투입해 탑승형 VR 7종(자이로 VR 1대, 패러글라이딩 VR 2대, 플라잉젯 VR 4대)을 도입하는 등 전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드론 체험 프로그램 등 소규모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2021년부터 천문대 최초로 연회비 5만 원을 내면 가족 모두가 1년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가족회원제를 운영 중이다.

**문의** 063-620-6900

**누리집** <https://www.namwon.go.kr/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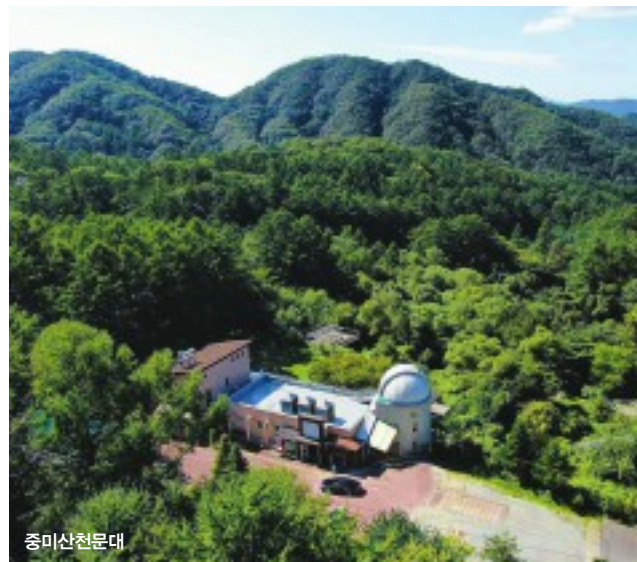
**주소** 전북 남원시 양림길 48-63

**이용 시간** (월요일 휴무) 하절기(4~9월) 10:00~22:00, 동절기(10~3월) 10:00~21:00

**이용 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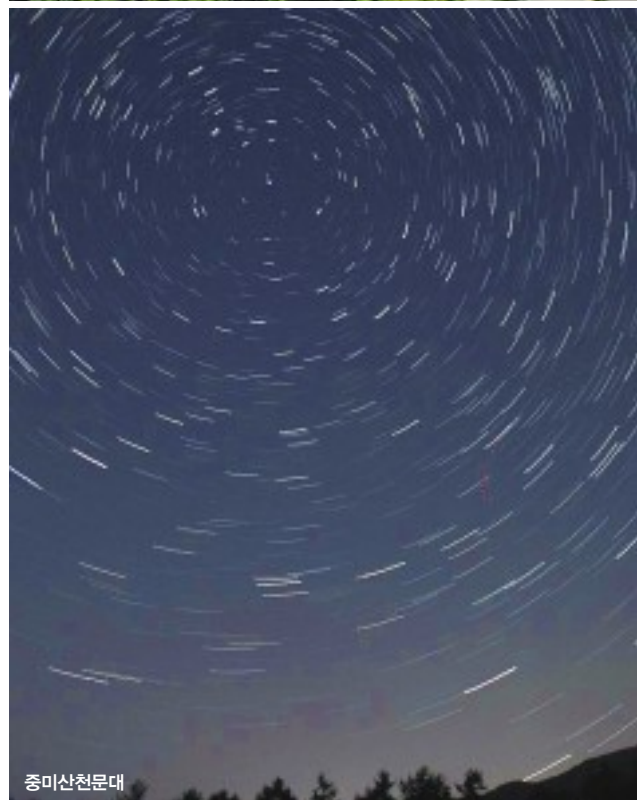


중미산천문대

### 4 서울 근교에서 보는 별 중미산천문대

개인이 세운 천문대로는 가장 오래된 곳으로 경기도 가평 중미산 자락 해발 420m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다.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는 의미의 중미산 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덕분에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자랑한다. 관측 장비가 없어도 무려 3000여 개 별을 볼 수 있다. 360도 회전하는 6.6인치(16.76cm) 크기의 관측 돔과 천문대 주 망원경인 '셀레스트론 CGE 14인치(35.56cm)' 반사굴절망원경은 명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페가수스·안드로메다·페르세우스·도마뱀·삼각형자리를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다.

야외 관측장에도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태양망원경 등 보조 망원경과 쌍



중미산천문대



세종천문대



안경, 촬영 장비, 상안 장치, 태양흑점 필터, 성운 필터 등 다양한 관찰 장비가 준비돼 있어 천체관측의 최적지로 꼽힌다. 별을 보지 못하는 날에는 천문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교육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배우고 야광 별자리 카드 만들기 체험 등으로 별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당일 별자리 여행과 별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명 이상 가족을 위한 1박 2일 가족별빛캠프와 가족·학교·회사 등을 위한 1박 2일 단체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서울 기준 1시간 내외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기상 악화 등으로 관측하지 못한 경우 재방문 시 무료입장할 수 있다.

**문의** 010-8520-0818

**누리집** [www.astrocafe.co.kr](http://www.astrocafe.co.kr)(매달 관측 대상 안내)

**주소** 경기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268

**이용 시간** (화·수요일 휴무) 19:00~23:00(천문 시뮬레이션 교육 후 천체 관찰 50분)

**이용 요금** 2만 2000원(예약 필수)

## 5 상상 속 우주를 그린다 세종천문대

1998년 초에 개관한 여주청소년수련관 내 세종천문대는 사설 천문대로는 최대 규모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국내 민간 최대인 26인치(66cm) 불곡천체망원경, 12인치(30.48cm) 굴절망원경, 14인치(35.56cm) 라이트 슈미트뉴턴식 반사굴절망원경 등 최첨단 관측 시설을 갖췄다. 특히 12인치 굴절망원경을 통해 상상만으로 그려보던 행성, 성운, 성단 등 우주의 모습과 별자리 등을 컴퓨터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자랑거리다. 천체 관측은 물론 천체투영관과 천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별자리 교육도 가능하다. 도자기 실습, 양초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영장을 운영 중이다. 주변 섬강에서 래프팅도 즐길 수 있다.

**문의** 031-886-2200

**누리집** <http://www.천문대.kr>

**주소** 경기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472-2

**이용 시간** (매주 토요일) 하절기(4~9월) 19:30~20:30, 동절기(10~3월) 19:00~20:00

**이용 요금** 1만 원(36개월 미만 무료)

# 침범섬 캠핑섬 보양섬 찰칫섬

## 놀거리·볼거리 풍성한 섬으로 떠나요~

### 쉽 찾아 떠나는 섬 여행

2022년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면 전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한국섬진흥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을 네 가지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여름 섬 15곳이 소개된 네 가지 여행 주제는 물놀이를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침범섬’,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캠핑섬’, 원기 회복에 필요한 건강식이 가득한 ‘보양섬’, 뜨거운 여름 바다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찰칫섬’ 등이다.

또한 관광객 ‘미션형 이벤트’는 8월 21일까지 해당 섬에 방문한 인증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한두 장 올리고 #2022찾아가고싶은섬, #여름섬, #방문한섬이름 등 해시태그를 걸면 된다. 이벤트 결과는 8월 31일 발표하며 상품권과 다양한 상품을 지급한다(www.kidi.re.kr). ●

글 김민주 기자, 사진 한국섬진흥원



침범섬-울릉도



침범섬-욕지도 스쿠버다이빙

### 해양레저 체험과 물놀이를 원한다면 ‘침범섬’

‘침범섬’은 해양레저 체험시설이 있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으로 선유도(전북 군산시), 울릉도(경북 울릉군), 욕지도(경남 통영시), 칠천도(경남 거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

**선유도**에서는 2022년 섬의 날 행사(8월 8~14일)와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8월 12~15일)이 열린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천연 해안사구로 이뤄진 선유도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며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집라인도 즐길 수 있다. 고려시대 왕이 임시로 머물던 송산행궁 터가 남아 있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승리 직후 전열을 정비하던 선유도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여행의 교육적 의미도 챙길 수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27 **문의** 063-465-5186

**울릉도**에서는 신비한 바다와 해양생물을 볼 수 있는 스킨스쿠버,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 가능하다. 울릉도의 6~8월은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며 초급에서 강사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오징어축제, 울릉해변가요제, 회당문화제, 우산문화제, 달맞이축제, 민속 그네뛰기 등 다양한 축제가 열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먹거리로는 홍합밥, 오징어내장탕, 오징어물회, 콩치물회, 따개비칼국수, 산채비빔밥, 독도새우 등이 있다.

**주소**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길 236 **문의** 054-790-6454

**욕지도**는 여름철 섬에서 다양한 바다 체험은 물론 신선한 수산물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욕지면 서산리 유동마을은 여러 다이빙 포인트(최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다이빙 체험에 안성



맞춤이며 해상 낚시 체험장, 해수욕장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기 좋은 곳이다. 옥지도 남쪽 유등마을 아래에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삼여도, 에덴동산 조형물이 있으며 새천년 기념탑, 덕동해수욕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해안 산책로에 있는 2km의 옥지도 출렁다리도 인기가 많다.

**주소** 경남 통영시 옥지면 유등길 108 **문의** 055-641-2233

**칠천도**는 바다가 잔잔해 물놀이하기 좋은 물안해수욕장이 있고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해 수상스키, 웨이크서핑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발달돼 있다. 또한 조선 최대의 수군 패전으로 기록된 칠천량해전의 역사적 아픔이 있는 섬이다. 전시관과 야외 위령 조형물 등이 있는 칠천량해전공원을 돌아보며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정유재란(1597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주소** 경남 거제시 하청면 **문의** 055-639-3198

### 연인, 가족과 여름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캠핑섬'

'캠핑섬'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며 캠핑, 차박(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무녀도(전북 군산시), 관매도(전남 진도군), 대매물도(경남 통영시), 응도(충남 서산시) 등 4개 섬을 캠핑섬으로 선정했다.

**무녀도**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무선인터넷 등을 갖춘 최신식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을 보유한 섬이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함께 오토캠핑이 가능하며 갯벌 체험 등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시설은 오토캠핑장 18면, 카라반 5면, 글램핑 4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특산품으로는 바지락과 굴 등이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문의** 063-454-7280

**대매물도**는 탁 트인 쪽빛 바다와 보석 같은 섬들로 잇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안겨준다. 또한 폐교에서 재탄생한 캠핑장은 주말마다 수십 동의 알록달록한 텐트로 채워지며 캠핑의 낭만을 더한다. 이곳에는 다수의 펜션과 민박이 있어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몽돌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바다 낚시, 스킨스쿠버 등이 가능해 여름철 휴식과 레저를 원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미역이 유명한 대매물도는 성계미역국이 일품이다.

**주소**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문의** 055-650-0580

**응도**에서는 가족 단위 체험과 힐링 숲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오염되지 않은 갯벌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바탕으로 바지락 캐기, 낙지잡이, 망둥어 낚시 등을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유두교로 하루 두 번 통행이 가능해 바닷



보양섬-사랑도



보양섬-사랑도

길 시간을 확인하고 섬에 들어가야 하며 해가 지고 다리가 물이 잠기는 모습이 아름다워 야경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마을 곳곳에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자연생태 자원 등이 있다.

**주소** 충남 서산시 대신읍 웅도1길 92 **문의** 0507-1320-0997

**관매도**는 우리나라의 유인도 400여 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힌다.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며 캠핑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이다.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곶술에서 즐기는 캠핑은 물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관매팔경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4~5월 말까지는 유희 농경지를 활용한 9만 9000㎡(3만 평)의 면적에 유채꽃과 메밀꽃 등을 심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먹거리는 관매도 특산품인 톳으로 만든 톳칼국수, 썩막걸리 등이 있다.

**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길 37-1 **문의** 061-542-8330

### 무더운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섬'

'보양섬'은 몸에 좋은 장어, 민어 등 원기 회복을 위한 건강식을 맛볼 수 있는 3곳을 선정했다. 사랑도(경남 통영시), 조약도(전남 완도군), 임자도(전남 신안군) 등이 속한다.

**사랑도**는 여름철 보양식이 유명한 섬이다. 사랑도 섬 동쪽에는 전국 100대 명산인 지리산에서 옥녀봉으로 이어지는 등산길

이 기암절벽으로 이뤄져 섬과 바다에서 모험과 낭만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등산 후 흑염소와 장어로 여름철 보양까지 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사랑도에서 산행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바다낚시다. 1년 내내 볼락, 도미, 노래미, 광어, 감성돔이 잘 잡혀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소** 경남 통영시 사랑면 **문의** 055-650-0580

**조약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치유의 섬으로 바다와 산림이 복합돼 해양 치유와 산림 치유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섬에 다양한 약초가 많아 약산도로 불리기도 한다. 다양한 식물과 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가 유명하다. 따라서 흑염소탕, 흑염소전골, 흑염소수육 등이 인기가 많다. 특산물로는 흑염소가 공식품과 약초(삼지구엽초), 해조류(매생이, 꼬시래기, 청각) 등이 있다.

**주소**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문의** 061-550-5152

**임자도**는 원기 회복 음식인 민어가 인기 높다. 여름 신안 앞바다에서는 동백경화, 치매 예방, 항암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민어가 많이 잡힌다. 따라서 송도위판장에서 매일 아침 민어 경매가 열린다. 임자도는 섬이지만 차로 이동이 가능하며 말을 타고 해변을 달릴 수 있는 대광해수욕장, 39만 6000㎡(12만 평) 규모의 대규모 툼립공원, 매화꽃을 주제로 한 조희룡미술관 등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하다.

**주소**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길 179 **문의** 061-275-3004



문화체육관광부  
KOR  
mest.go.kr

찰각섬-도초도



찰각섬-방축도



찰각섬-가우도

### 추억과 함께 인생 최고의 사진까지 '찰각섬'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찰각섬'에는 도초도(전남 신안군), 대청도(인천 옹진군), 가우도(전남 강진군), 방축도(전북 군산시) 등 4개 섬이 뿔뿔하다.

**도초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시목해수욕장과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개한 수국축제가 열리는 수국공원이 있다. 따라서 캠핑과 해수욕을 하면서 아름다운 수국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까지 건질 수 있다. 시목해수욕장은 해변의 모양이 백두산 천지와 닮아 있고 경사가 완만하며 바닷물이 맑아 피서지로 적합하다. 백사장 뒤 해송 군락에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인근 섬 사이에서 바다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

**주소**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문의 061-275-6696

**대청도**는 모래올해변과 해안사구로 '한국의 사하라'라고 불린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섬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백사장 덕분에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옥죽동해변 뒤편에는 모래사막이 있는데 부드러운 바람으로 생김 높은 모래산과 골짜기들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인생 사진 명소다. 대청도는 지질학적으로 희귀한 명소가 다수 분포돼 2019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동백나무 최북단 자생지로 보호받고 있다.

**주소**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문의 032-899-3610

**방축도**는 출렁다리와 독립문바위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동백나무 숲이 아름다워 이곳을 지나는 트레킹 코스도 유명하며 83m의 출렁다리를 지나면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이 트레킹 코스는 독립문바위와 기암괴석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주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1길 13-1 문의 063-450-6110

**가우도**는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강진만 가운데 위치한 가우도는 오직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육지와 이어진 다산다리와 청자다리가 있으며 가우도의 상징물인 청자타워에서는 집트랙과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섬 해안선을 따라 산-바다-강진만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는 복합낚시공원, 15m 높이의 긴장감 넘치는 출렁다리 등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주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월곶로 473 문의 061-430-3114

## 한국의 장맛에 푹 빠진 외국인들

###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의 질문에 20여 명의 외국인인은 비빔밥, 부대찌개, 불고기, 갈비 등을 답했다.

“지금 다 다른 음식을 말했는데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장이죠. 혹시 이거 보셨나요?”

홍 씨의 손에 들린 건 메주였다.

“드라마에서 매달려 있는 거를 봤다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콩을 삶아 절구에 넣고 잘 찧은 다음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 겨우내 말린 거예요. 간장, 된장, 고추장 모두 여기에서 나와요.”

홍 씨가 나눠준 메주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은 외국인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다. 홍 씨는 “콩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죠? 좋은 발효균이 생성된 게 한국의 장”이라며 장을 담그고 가르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 다시 두세 달을 놔둬요. 그러면 메주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장을 가르면) 국물은 간장이 되고 건더기는 된장이 됩니다. 메줏가루와 고춧가루로 만든 게 고추장이예요. 콩을 발효시켜 비빔밥, 부대찌개, 불고기, 갈비의 맛을 다 만드니 한국의 맛은 장맛이라는 거예요.”

홍 씨는 조리대 앞에 놓인 각종 유리병을 가리키면서 “여러분은 수퍼마켓에서 병에 담아놓은 장을 쉽게 살 수 있지만 장의 마지막 재료는 시간이다. 1년을 묵혀야 이렇게 된다”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과정을 거친 소스는 별로 없다. 한식은 오랜 시간과 단순한 재료에서 나오는 발효식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의 장 가르기 시연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 한국의 장 활용한 음식 체험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원데이 투어)' 행사가 열렸다.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이 요리사, 종부 등 명인들과 함께 한식을 배우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상반기는 '한국의 장 문화를 배우다'를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장과 장을 활용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전현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장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다. 한식의 다양한 맛을 표현하고 발효 음식으로서 우수한 점도 검증돼 있다"며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16일 열린 첫 행사는 2022년 개관한 서울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진행됐다. 국내 최초 한식 부문 미술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이 한식을 요리사, 종부 등 명인들과 함께 배우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랭 스타 요리사인 유현수 씨가 강사로 나서서 장 담그기 과정을 보여준 뒤 제주의 장을 활용한 '토마토 동치미'를 시연했다. 이어 외국인 참가자들이 된장소스를 곁들인 '나물 어만두'를 직접 만들었다.

5월 25일에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충북 보은 우당고택에서 보성 선씨 김정옥 종부가 충북의 장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였다. 6월 7일에는 경북 영주의 만포농산에서 경상도의 장을 활용한 김호윤 요리사의 강좌가 열렸고 6월 13일에는 경북 안동 군자마을 계암정에서 광산 김씨 김도는 종부의 강좌가 열렸다.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 행사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을 활용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한국의 장이 이렇게 폭넓게  
쓰일 수 있음에 놀랐다.”**

기름을 두른 팬에 부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식당에서 사 먹는 파전은 엄청나게 큰데, 홍신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은 크기로 부치니 팬케이크 같다”고 했다.

참가자들의 실습을 둘러보던 홍 씨가 “여기 보면 반죽의 가장자리부터 익기 시작해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 이 정도의 선이 생겼을 때 뒤집으면 실패가 없다”고 알려줬다. 다 익은 고추장떡을 먹어본 김 씨는 “조금 맵기는 한데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이라고 했다.

홍 씨는 “고추장떡은 고추장으로 만들지만 부침개는 비슷한 형태가 어느 나라에나 있고 팬케이크 같은 식감이라 외국인에게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다.

#### 1년 걸리는 장 만들기에 깜짝 놀라

현재 양식당을 운영하는 홍 씨는 간장과 까나리액젓을 이용한 요리는 물론이고 고기에 된장을 발라 요리하고 고추장을 생선 소스에 활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식당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역 재료로 한식의 기법을 이용하는데도 모양 자체는 양식이니까 외국인도 다들 거부감 없이 먹어요. 나중에 된장으로 구웠다가

#### 직접 부친 고추장떡 먹고 “신기한 맛”

이날 장 담그기·가르기를 시연한 홍신에 씨는 전라도의 장을 활용해 갈비와 고추장떡(장떡)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침개 들어보셨죠? 파전, 김치전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전을 만들 거예요. 먼저 고추장을 많이 넣어요. 매울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 이따 맛보면 알아요.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

외국인 참가자들은 고추장이 잔뜩 들어가자 놀라면서도 처음 보는 고추장떡에 관심을 보였다. 홍 씨는 고추장 반죽에 간장과 참기름을 조금 넣은 뒤에 파와 고추를 썰기 시작했다.

“파를 썰어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파가 익으면서 달아져요. 매운맛과 단맛을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시연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다. 참가자 가운데 1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모로코 출신 유튜버 김미소 씨도 있었다. 홍 씨의 고추장떡 조리법대로 반죽한 뒤



1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가 직접 구운 갈비를 보여주고 있다. 2 홍신애 씨가 모로코 출신 유튜브 김미소 씨에게 갈비를 먹여주고 있다. 3 홍신애 씨가 외국인 참가자에게 갈비를 먹여주고 있다. 4 외국인 참가자들이 고추장떡을 부치고 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추장 조리법이라고 설명하면 깜짝 놀라고 신기해하죠.”

우리나라에 온 지 4년 된 김 씨는 처음 된장을 접하고 숟가락 가득 떠서 먹었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장만 떠먹었는데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쌈처럼 다른 재료에 조금만 넣어 먹어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된장과 사랑에 빠졌죠.”

모로코에는 우리나라의 장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드는 소스나 음식이 없다고 했다.

“오늘 장 만드는 과정을 보니 정말 특별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고 쉽게 만들어지는 소스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학교를 통해 행사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미국 출신 유학생 마리아 씨는 “장을 활용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한국의 장이 이렇게 폭넓게 쓰일 수 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

문화재청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3월 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 목록, 긴급 목록에 각 나라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다. 유네스코는 2023년 말부터 등재 심사를 시작해 최종 심사회의를 거쳐 2024년 말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2019년 말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22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결정됐다. 문화재위원회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장 담그기)로 지정된 우리 무형유산으로 해외동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장을 담그고 나누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며 “장은 우리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장을 담그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 담그기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장 문화 체험·교육 관련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3년 동안 1800여 명이 장 담그기 체험·교육을 이수했다.

2021년에는 메주 만들기부터 장 가르기, 장을 활용한 요리법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고 참여 대상도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 담그기 학교’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 문화의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2020년 11월 ‘동북아 두장(豆醬)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망’과 2021년 10월 ‘한국 전통 장 문화의 인류무형유산적 가치와 확장성’ 등 국제 학술대회도 열어 우리나라 장 문화의 독창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 우리나라 매력 스페인 사로잡았다

### 스페인서 '한국주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와 산티아고에서 '한국주간(Korea Week)'을 열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스페인 현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 관광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펠리페 6세의 국빈 방한 때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2020년~2021년을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2021년 6월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7월 8~9일 '나의 한국: 숨겨진 보석들'을 주제로 스페인 현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 문화관광 종합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보자기, 매듭 등 수공예와 한글 붓글씨 등 전통문화 체험, 스페인 여행업체가 소개하는 한국 관광상품 상담, 우리나라의 사계절·전통건축 등을 소재로 한 한국 관광 사진전 등이 열렸다.

### 산티아고 순례길에 '돌하르방' 설치

7월 11일에는 양국 관심 분야인 '지능형(스마트) 관광'을 주



7월 9일 스페인 마드리드 베투노 공전에서 열린 '한국주간' 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웃음이 체험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과 마드리드, 인천과 바르셀로나 항공편 직항노선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주간 개최는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광교류를 재점화하고 유럽과 중남미 관광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제로 '한·스페인 관광포럼'을 개최했다. 박 장관의 개회사와 페르난도 발데스 베렐스트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관광차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양국 전문가들은 지능형 관광도시, 지능형 관광 벤처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희자 문광연 연구위원이 '지능형 관광도시의 미래를 위한 관광 연구개발(R&D)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조영원 (주)비지트 대표가 '지능형 지역 관광 상품, 관광객 참여형 기술 접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페인 측에서는 카를로스 로메로 텍세우스 관광기술진흥원(SEGITTUR) 개발혁신국장과 안토니오 베르나베 가르시아 스페인 발렌시아 관광청 국장이 '지능형 관광도시'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여행 동호회(커뮤니티) 중 하나인 미누브(minube)의 곤살로 모레노 대표는 지능형 관광도시를 위한 새로운 관광을 소개했다.

이어 7월 11일부터는 한국주간의 주요 행사인 '담연'의 한복 패션쇼, 국립국악원의 '대금산조와 '입춤' 공연, 한식 식재료를 활용한 스페인식 만찬이 펼쳐졌다. 12일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제주올레길의 상징물을 설치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스페인은 상호방문의 해를 계기로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올레길에 공동 상징구간을 조성하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 마지막 관문으로 많은 도보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몬테 도 고조(Monte do Gozo)에 제주올레길의 상징물 '돌하르방'을 설치하고 제주 해녀공연과 갈리시아 민속공연, 제주 관광 사진전을 함께 진행했다. 문체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갈리시아 알폰소 루에다 발렌주엘라 주지사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카지노 데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주간' 행사에서 한복패션쇼를 지켜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한국주간 행사 기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주연 배우 이정재 영화 상영회(12~14일), 한국미용(K-뷰티) 체험행사(12~13일) 등의 한국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천과 마드리드, 인천과 바르셀로나 항공편 직항노선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주간 개최는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광교류를 재점화하고 유럽과 중남미 관광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한편 박 장관은 7월 11일 마리아 레에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박 장관은 “부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

이 있는 도시다.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기후변화, 보건 위기,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스페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에스 마로토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후보지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부산은 강점이 굉장히 많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관광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 관광사무소 개설은 2023년 스페인 관광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서울에 관광사무소를 개설해 실질적인 관광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다수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꼽고 있다. 양국 간 관광 분야 협력 차원에서 스페인의 서울 관광사무소 개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이찬영 기자



# 이달의 추천 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책나눔위원회가 매달 일곱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실용일반 ▲그림책·동화 ▲청소년 분야의 추천 도서는 여러분의 독서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공감>은 책나눔위원회의 추천 도서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문학	트로츠키와 야생란	이장욱	창비
인문예술	어쨌거나 밤은 무척 짧을 것이다	유운성	보스토크프레스
사회과학	그런 세대는 없다	신진욱	개마고원
자연과학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임소연	민음사
실용일반	이것도 산재예요?	노동건강연대	보리출판사
그림책·동화	심장 소리	정진호	위즈덤하우스
청소년	금융 프렌즈가 우릴 기다려	이현	곰곰(휴머니스트)



## 문학 트로츠키와 야생란

이장욱 지음 | 창비

문학성과 문장력, 타인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울림 혹은 아름다움에 지적 유희와 소설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까지. 그런 소설을 등단 후 거의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장욱이다. <트로츠키와 야생란>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쓰고 발표한 그의 네 번째 소설집이다. 어떤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돼 아마도 독자에게 가장 잘 알려졌 듯한 '잠수종과 독'을 비롯해 '너'와 '너'의 추억이 담긴 러시아에 도착해 얼음과 어둠뿐인 상황 속에서 다시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 얼어붙은 밤의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는 '트로츠키와 야생란'까지 총 아홉 편의 단편을 묶은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충돌, 균열, 어긋남 같은 것이 발생하는 순간을 느낄 때" 소설을 쓰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얼음을 뚫고 피어오르는 식물들처럼' 이 책에 심겨 있다. 조경란(소설가)



## 인문예술 어쨌거나 밤은 무척 짧을 것이다

세기의 아이들을 위한 반영화입문

유운성 지음 | 보스토크프레스

평범한 입문서와 달리 다양한 영화의 사례를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특정한 철학이나 이론을 고수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독자의 지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영화의 본질은, 어떠한 절대적인 이론적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역사적 사례에 호소하는 일도 무력하게 만드는 강고한 모호함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란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에서 이런 의미의 영화하기가 탁월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평범한 교양 독자들이 흔히 기대하는 다이제스트식의 영화 입문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난해하고 복잡한 이론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교양 독자의 지성"을 믿는 저자의 믿음을 믿는 교양 독자라면 이 책에서 영화로 입문하는 근사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진태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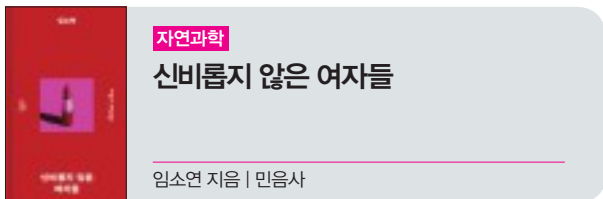


## 사회과학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신진욱 지음 | 개마고원

이 책은 세대 '간' 불평등 논의가 희미하게 만드는 세대 '내'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같은 세대 안에도 학력, 직업, 자산 규모, 주거지역, 성별, 주택 소유 여부, 가치와 이념 등 다양한 기준이 교차하면서 갖가지 방식으로 분화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그런 세대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세대 불평등 담론은 정작 더 중요한 불평등의 차원을 지워버린다. 이 책은 세대 간 불평등의 진면목을 보려면 우리 사회의 '하이클래스'에 속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대를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세대와 계급이라는 변수를 교차시켜 한국의 선거 정치를 설명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점차 계급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정치 현상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들의 역동성을 이해하게 된다. 정수복(사회학자·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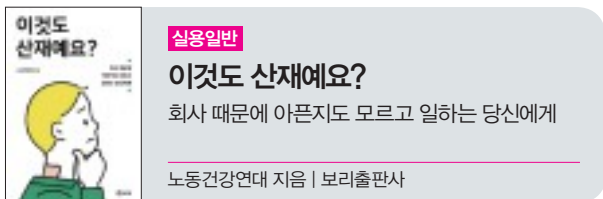


**자연과학**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임소연 지음 | 민음사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성은 과학자로도, 과학의 대상으로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학의 역사에서 여성은 비하되거나 신비화됐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이고, 여성에게서 그러한 “신비”를 벗겨낼 때만이 여성의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 책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학을 전공한 저자가 여성의 시각에서 현대 과학을 쫓아 파헤친 산물이다. 그 결론은 과학기술은 “엉망진창 내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은 삶과 동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난자 냉동, 쌍꺼풀 수술, 화장품의 문제처럼 보통 여성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이 얼마나 젠더의 편견에 오염돼 있으며 그런 사실을 인지할 때 과학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실용일반**  
**이것도 산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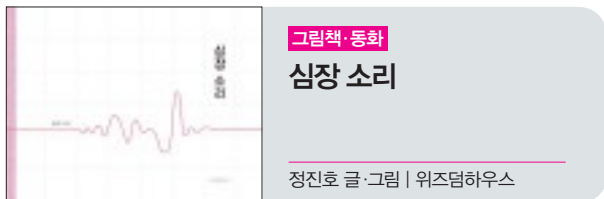
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

노동건강연대 지음 | 보리출판사

이 책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산재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산재보상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해준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산재보험 제도는 회사와 국가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럼에도 많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낯설다.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오히려 숨기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동 환경이 문제일까?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어려운 현실.

이 책은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게 도와준다.

표정훈(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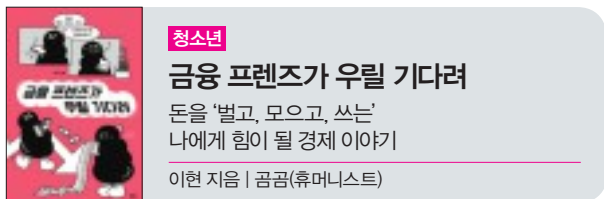


**그림책·동화**  
**심장 소리**

정진호 글·그림 | 위즈덤하우스

한 아이가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달린다. 맘을 흘리고 여러 사람을 지나 앞으로 나아간다. 아이는 자신이 열심히 달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일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을 잡거나 살을 빼기 위해서도 아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빨리 뛰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달리는 이유는 남들이 달리는 이유와 다르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달리는 것일까? 자기만의 속도로 달리던 아이는 전력 질주를 한 뒤 멈춰 서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는다. 손을 통해 전해지는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 그리고 심장 소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건너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겨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환기시킨다. 그림책의 마지막에 이르러 드디어 아이가 달리는 이유를 알게 될 때 독자들은 나에게 어떤 그리운 기억이 있는지 생각해볼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최현미(문화일보 문화부장)



**청소년**  
**금융 프렌즈가 우릴 기다려**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나에게 힘이 될 경제 이야기

이현 지음 | 꿈꿈(휴머니스트)

의문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현 기자’와 ‘금 앵커’의 짧은 대화는 실감 나게 들린다. 누구나 겪는 현실이면서 언젠가 내게 영향을 미칠 일들이기 때문이다. ‘돈’의 위력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제 교과서와 뉴스에 등장하는 화폐, 자본, 금융은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인간의 삶,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를 이해하려면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는 좋다.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지, 환율은 누가 정하는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 저자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게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한다. 천천히 읽으면서 세상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류대성(읽기의 미래) 저자

# 편견 대신 가슴으로... 예술에는 문턱이 없다

## ① 드림위드앙상블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이 악기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은 청중에게 뭉클한 감동을 준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이들이 수천 번의 노력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곡을 듣다 보면 장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은 국내 최초 발달장애 전문연주단체로 장애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주로 우리 인생에 있어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공헌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드림위드앙상블은 '하트클라리넷앙상블'로 수년간 활동하다가 전문연주자의 꿈을 안고 2015년 독립했다. 1기 단원들은 애초 서울의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파트에서 함께 활동했다. 자녀들이 전문연주자로 살아가기를 바랐던 어머니들이 이들을 독립 연주단체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어머니들은 여러 차례 연수회(워크숍)를 열어 발달장애인의 음악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드림위드앙상블은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 '발달장애인들의 방탄소년단(BTS)' 별칭

드림위드앙상블은 발달장애인 단원 11명과 지도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은 클라리넷 연주자 8명, 색소폰 연주자 2명, 드럼 연주자 1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중 9명이 음악대학 졸업자일 정도로 실력을 갖췄다.

단원들은 동호회원이 아니라 전문연주자들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직원이다. 어머니들은 애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하고 보완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방탄소년단(BTS)'이라는 별칭을 들을 만큼 성장했다.

드림위드앙상블은 2018년 9월 청와대 초청 발달장애 케어 정책발표회에서 공연했다. 또 2018년 12월에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청 공연을 펼쳤다.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국가협의회(믹타·MIKTA)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드림위드앙상블은 공공기관, 일반 회사, 각급 학교, 복지기관 등의 초청을 받아 공연한다. 2019년에는 무려 104회 공연을 펼쳐 연주 거리가 8708km에 이른다. 공연 시간이 4115분에 달했고 관객 수는 4만 6477명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공연 횟수가 줄어들면서 각각 50회와 59회를 공연했다. 드림위드앙상블은 클라리넷앙상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악기의 영역을 넓혀 밴드팀도 운영하고 있다.

드림위드앙상블은 2019년 8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드림위드상블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음악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문연주자  
양성과 음악적 치유를  
병행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음악회’  
형태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1 대구대학교 초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콘서트 2 2021년 12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초청 식전 연주

로 지정돼 2020년부터 3년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드림위드상블이 진행하는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과 연주가 접목돼 주입식 강의보다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악기·공연·합창·연극·뮤지컬·마당극 등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전문연주자 양성과 음악적 치유 병행

드림위드상블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음악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문연주자 양성과 음악적 치유를 병행하고 있다. 또 나눔과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문화소외계층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 형태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은 드림위드상블에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벨스 만델라 재단 등의 초청을 받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 것이다.

13박15일로 예정된 이 순회공연은 남아공의 주요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더반·케이프타운을 방문해 드림위드상블의 연주를 남아공 현지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옥주 이사장은 “이번 남아공 방문은 국가 행사급으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준비할 것도 많고 기대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공연을 통해 남아공 현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옥주 이사장은 “대부분의 관객은 ‘장애가 있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듣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드림위드상블이 만들어낸 곡들을 듣고 감동했다는 말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단원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자부했다. ●

글 이찬영 기자, 사진 드림위드상블

# “한강으로 물 마시러 가는 용의 기세를 닮았다”



1

## ⑨ 역사 속 용산

오늘날 서울 용산은 미군기지로 각인돼 있지만 이전에는 일본군기지가 있었던 곳이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의 일이다. 일본은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에 근거해 일본군 주둔을 위한 대상지로 용산을 정했다. <용산을 읽다 용산을 걷다> 저자인 역사학자 한애라 보담역사문화연구소 대표가 100년 전 용산을 이야기한다.

## # 둔지산, 둔지미, 둔지방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의 본래 지명은 잊혔습니다. 일본이 거대한 규모의 병영을 설치하면서 역 앞 일대를 일본인을 위한 새로운 도시, ‘신용산’으로 개발했어요.”

용산 역사에서 만난 한애라 보담역사문화연구소 대표의 첫 마디였다. 그렇다면 진짜 용산은 어디에 있을까? 한애라 대표는 옛 지도를 보여주었다. 19세기 초 무렵의 한양도성과 성저십리(한양도성 밖 십리, 4km 이내의 지역) 일대가 잘 나와 있는 지도다. 도성 서쪽 인왕산과 무악(안산)에서 뻗어나간 산줄기가 만리현과 효창묘를 거쳐 한강 변으로 향한다. 그 끝자락에 용산(龍山)이 있다.

한 대표는 “용산의 산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두고 용의 기세와 닮았다고 또는 용이 한강으로 물 마시러 가는 형국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라는 설명이다.

지도를 보면 조선 후기 용산방은 지금은 복개된 만초천(蔓草川)의 서쪽인 청파역과 공덕리, 그리고 마포나루 일대에 걸쳐 있었다. 용산방의 많은 지역이 오늘날 마포구에 속한다.



2



3



1 강세황의 '남산여삼각산도'(18세기 후반, 개인소장). 표암 선생이 둔지산 두운지정에서 남산을 바라본 전경. 그림 속 마을이 둔지미 일부분이다. 2 1910년(축도 연도) 경성(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구용산, 신용산, 둔지방, 둔지미가 표시돼 있다. 3 1860년대 김정호가 그린 '경조오부도'에 보이는 둔지산과 용산. 두산 사이의 물길이 만초천이다. 4 개통 당시의 용산 역사 모습 5 1906년 2층 규모의 서양식 목조건물로 새로 지어진 용산역사. 아래 철길이 보인다. 6 경의선 개통 후 용산 역사 모습을 담은 조선엽서 7 용산우편국 부근에서 삼각지 방향을 바라본 풍경(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로가 뺨 뚫리면서 용산역이 개발됐다.

용산(龍山) 자락의 흔적을 지금 찾고자 한다면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사이의 용마루고개로 가보자. 효창공원에서 한강 쪽으로 흘러내리는 구릉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곳이 용산(龍山) 자락이다. 그 정상에 천주교 용산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고층아파트로 인해 시야가 많이 좁아졌지만 성당에서 한강이 내려다보인다.

옛 지도에서 오늘날 용산으로 불리는 곳을 찾아봤다. 일본이 신용산으로 개발한, 오늘날 미군기지와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한 곳에 '둔지산(屯之山)'이 적혀 있다.

한 대표는 "산과 그 일대에 들어선 마을이 있었고 주민이 대대로 살고 있었다"며 "둔지산과 둔지미 마을이 있던 지역은 조선시대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屯之坊)이라는 행정구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김홍도의 스승인 표암 강세황이 말년에 둔지산 정상에 지은 두운정에서 북쪽의 풍경을 그린 '남산여삼각산도'를 보면 남산 아랫마을인 둔지미 일부분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둔지산 일대를 강제수용하고 각종 기지 시설에 '용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둔지미 주민들은 지금의 보광동 일대로 쫓겨났다. 일본군이 물러난 곳에 미군이 주둔하며 한 세기가 지나고 사람들은 차츰 둔지산, 둔지미, 둔지방이란 본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됐다.

한 대표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와 용산의 역사에 관심을 가

진 시민단체들이 '용산 둔지산 제자리 찾기 시민연대'를 결성해 빼앗긴 땅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둔지산과 둔지미 마을 주민들의 젖줄이었던 만초천의 흔적은 용산기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그리고 '신용산'의 탄생

조선시대 도성 밖 마을은 어떻게 한순간 조선 최고의 지역으로 변모했을까? 한 대표는 "철도가 들어오면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말했다. 1900년 한강철교가 개통되면서 노량진역까지만 오가던 경인선이 한강을 건너 용산역을 거쳐 도성 바로 옆 서대문역까지 이어졌다.

경인선 경유지였던 용산역과 그 일대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04년 무렵.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04년 2월 경의선을 군용철도로 부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 달 만에 용산과 개성 간 철도부설을 시작했다. 한 대표는 "일본군까지 동원한 경의선 부설공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며 그 결과 "공사 2년 만에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전 구간을 개통했다(1906년 4월 3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막대한 토지와 엄청난 노동력이 수탈당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역 앞의 광장에서 한강로로 이어지는 방사형 도로도 병참수송을 위해 뚫은 길이다. 1914년에 경원선까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철도 운행의 요충지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

용산역 주변으로 철도 관련 시설이 옹기종기 모이고 건축·토목·금융 등 기업 사무소가 곳곳에 자리하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새로운 시가지로 탈바꿈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격자형의 규칙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바로 새로운 용산 '신용산'의 탄생이다. ●

글 심은하 기자, 사진 계공 한애라

# MZ세대 목소리 ‘청년보좌역’이 직접 듣는다

## 9개 부처 장관실에 배치

“왜 인공지능(AI) 윤석열은 도리도리 안 하는 거죠?”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1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운영하던 공약 누리집 ‘윤석열 공약위키’에 등장한 ‘AI 윤석열’은 유권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해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AI 윤석열은 윤 대통령의 영상과 음성을 AI를 통해 화면에 구현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딱딱한 이미지를 보완해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윤석열 공약 위키’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질문에 1분 내의 짧은 재치 있는 답변으로 누적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2030세대는 “생각 없이 봤다 빵 터졌다”, “갑자기 윤 후보가 말을 잘하네”, “계속 보게 된다”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든 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소속 청년보좌역들이었다. 선대본부에는 21~36세(평균 나이 30세)인 총 42명의 청년보좌역이 있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와 선거 당시 연일 시선을 끌었던 윤 대통령의 누리소통망(SNS) ‘한줄 공약’, 공약에 스토리를 담아 예능 영상처럼 제작한 ‘유튜브 쇼츠(59초 내의 짧은 영상)’ 역시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청년보좌역들은 전권을 가지고 이 같은 콘텐츠를 주도적으

로 제작함으로써 선대본부와 2030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청년은 정책 시혜 대상 아닌 국정 운영 파트너”

2030세대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청년 스스로가 주역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보좌역을 신설키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1명씩 배치한 뒤 전 부처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별정직 5급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9개 부처의 직제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8월 목표로 대한민국 청년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모집 방법은 블라인드(정보 가림) 방식의 채용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공정’이 청년세대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다. 5급 대우를 받게 되는 처우는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7급과 9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공시족’이 수십만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별정직 5급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6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사, 제대 후 취업을 준비하는 군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 관계자는 “공정성을 고려해 직급을 낮추는 것도 검토했지만 위계가 강한 공무원 조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5급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독립성’ 보장받아 ‘2030 자문단’과 활동

이전에도 ‘청년비서관’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대통령의 청년 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보좌관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청년보좌역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2030 자문단’과 함께 활동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췄다.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보좌역이 부처별로 한 명씩 배치되는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더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보좌역 간 교류 활동도 마련해 청년보좌역 간의 소통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9개 부처별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새로 마련된 것과 청년보좌역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

해서도 정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김우철 과장은 “청년보좌역은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이 직접 수시로 기관장에게 알림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청년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수행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면서 “다만 신설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일단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기관에 우선적으로 청년보좌역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보좌역의 독립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청년보좌역이 기관장을 직접 보좌하는 독립된 기구는 아니지만 장관실 등 기관장실에 배치돼 비서실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청년보좌역의 취지가 자칫 퇴색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선 가급적 기관장 이외의 상급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기본법 제정 2년, 청년보좌역이 힘 실을 것”

청년기는 누구나 겪는 생애주기의 시기로 청년세대는 미래 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일자리, 주거, 소득, 자산 등 여러 분야에서 불리하고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 정부가 여러 세대 중에서도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8월부터 시행)으로 이어졌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실천과제	대표 세부 내용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li> <li>· 청년 취업지원 혁신</li> <li>· 청년창업 기반 강화</li> <li>·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li> <li>·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원가주택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li> <li>·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출시·개선</li> <li>·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li> <li>·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li> <li>· 국가장학금 대상·지원금 확대</li> </ul>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 기반 구축 · 청년 자산형성 지원</li> <li>· 취약청년 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 청년도약계좌 출시</li> <li>· NEET 청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li> </ul>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li> <li>·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인프라 정비</li> <li>·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보좌역 배치·운영</li> <li>· 청년맞춤형 원스톱 플랫폼 개발</li> <li>· 자격제도 실무경력 요건 완화</li> </ul>

**“청년보좌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의 요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도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청년과 청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청년의 손으로 직접 만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최초의 종합 계획으로 앞서 일자리 중심이었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렀다는 데 의미가 크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아직까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청년보좌역은 청년기본법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 김우철 과장은 “청년들은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의 정책 참여 범위를 청년정책만으로 한정하는 등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전 세대보다 빠른 정책 변화를 원하는 디지털세대의 요구를 국정 전반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점점 더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열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보좌역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김 과장은 “청년보좌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

년의 요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도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9개 부처의 청년보좌역 운영 결과를 토대로 청년보좌역 도입을 확산하는 등 청년의 국정 참여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⑩

조윤 기자

**‘청년보좌역’ 어떤 역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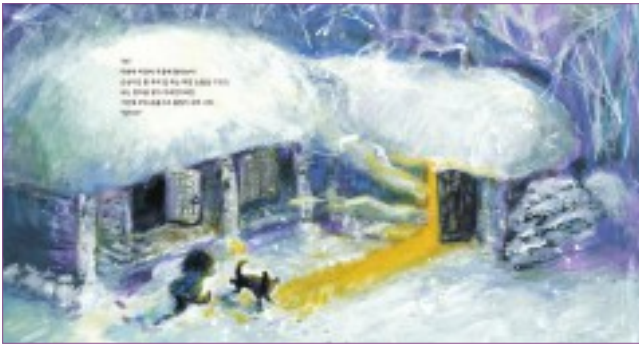
- 청년세대 인식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로 장관 직접 보좌
  -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언, 청년 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 ‘2030 자문단’(20명 이상의 청년세대 단원, 임기 2년)과 함께 활동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 35세) 누구나 지원 가능
  - 법령 개정 후 공모, 8월 채용 목표
  - 별정직 5급, 각 부처·위원회 장관실 배치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 각 1명씩 시범 운영 뒤 전 부처로 확대 검토

# 국수 먹으며 웃을 날을 기다립니다



## 시인 아저씨, 국수 드세요

신순재 글 / 오승민 그림  
천개의바람



3년 전 가을, 책방 옆에 방 하나를 얻어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꿈틀옆방'이라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책 모임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얻은 이곳에는 자그마한 주방도 있어서 모임이 끝나면 한 번씩 잔치국수나 떡국을 만들어 나눠 먹곤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그 정겹고 온기 가득했던 풍경을 다시 떠오르게 해 준 고마운 그림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백석의 '국수'라는 시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 <시인 아저씨, 국수 드세요>입니다. 시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향 평안도 산골마을, 그곳 자연과 사람들과 오랜 풍습을 어린아이의 귀엽고 순수한 시선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오세요, 오세요, 국수 드세요." 눈이 펄펄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 작은 외딴집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 국수를 나눠 먹습니다. 유난히 지치고 외로운, 가난한 시인도 다정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뜨거운 아랫목에서 살얼음 낀 동치미 국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 마침내 웃어요. "아!" 하는 탄성 뒤에는 시 한 자락이 숨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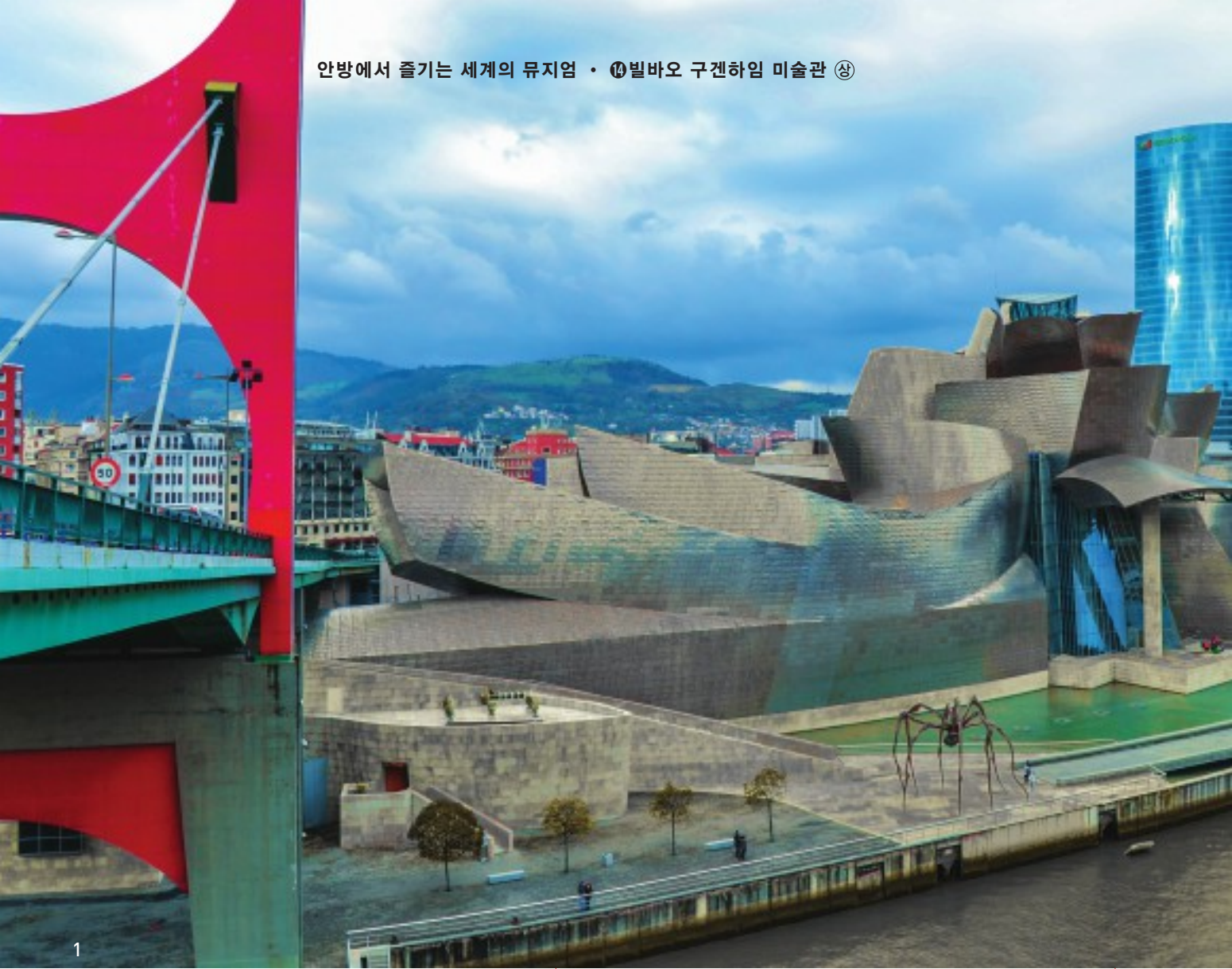
작가는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떠돌던 시인에게 그 좋아하던 메밀국수 한 그릇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화가인 아이도 실은 아버지가 멀리 장에 가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무서운 밤, 아버지가 눈발에 길 잃을까 내내 걱정되는 밤, 아버지가 토끼를 잡아 금방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시인과 아이의 그 긴긴밤이 어머니의 국수를 반기워하는 살가운 이웃들의 온기로 채워지는 사이, 저 멀리 문밖에서 또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암울했던 1930년대 시를 다루면서도 재미난 옛이야기 책을 보는 듯한 건, 소리 내어 읽어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좋은 화자의 구수한 입말뿐 아니라 그림의 역할도 크겠지요. 단순한 풍경에서부터 크기와 색을 강조해 마법이나 환상을 보는 듯한 장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약 조절이 이야기의 역동성을 더해주고 있어요. 저마다 밝게 웃으며 따뜻한 노란빛을 머금고 '둘러앉은' 인물들의 고유한 표정은 이 책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메밀국수 한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춥고 외로운, 또 다른 의미의 백석들이 가까이에 있을지도요. 다시 꿈틀옆방 가득 둘러앉아 국수 먹으며 웃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선 이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세요, 오세요, 책 보러 오세요." ●

이숙희·꿈틀책방 대표



1

## 도시를 바꾼 예술 지역을 살린 미술관



2

빌바오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예술이 도시를 바꾼다', '미술관 하나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는 말은 빌바오 구겐하임에서 비롯됐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스페인 최북단 도시 빌바오의 상징이자 글로벌 관광 명소다. 1980년대 말 도시 전체가 침체에 빠졌던 빌바오를 오늘날 도시재생 사업의 교과서로 화려하게 회생시킨 일등 공신이 다름 아닌 빌바오 구겐하임이다. 빌바오 구겐하임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관의 가치를 넘어 한 도시의 경제

를 살린 원동력이자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필수적인 교범(敎範)일 뿐 아니라 살아생전 누구나 한번은 방문하고픈 버킷리스트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쇠락한 산업도시 빌바오가 문화중심 도시로 환골탈태한 근본 원인은 민관이 똬똬 뭉쳐 장기 프로젝트로 일관되게 추진



3

- 1 살베 다리 건너에서 바라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Eneko Muiño
- 2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옆으로 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노선 ©jacme31
- 3 도시재생 사업 후 잘 정비된 네르비온 강변 모습 ©Niels Johannes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한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이며 빌바오 구겐하임은 그 성취물 중 하나일 뿐이라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찮다.

그런 점에서 몰락한 도시 빌바오의 극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빌바오 효과와 미술관 하나가 도시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구겐하임 효과를 구분하지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의미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미술관만 겨냥한 미시적 접근을 넘어 빌바오 도시 전체가 생태 공학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도시재생 사업을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철강·조선업 쇠락과 빌바오의 총체적 위기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란 말이 있다. 한 도시의 건축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데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교훈이 경제용어로 정착된 보기 드문 사례다. 도시는 스페인의 빌바오

오, 건축물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자치주인 비스카야주의 주도(州都)로 인구 35만여 명의 항구도시다. 빌바오는 1970년대까지 철강 조선업의 강자로 군림하며 한때 도시인구가 백만 명을 넘나드는 스페인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80년 들어 우리나라 등 세계 철강업계 신흥세력의 부상으로 빌바오 경제는 급속한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경쟁력이 무너진 빌바오의 제철소와 조선소가 잇따라 폐업하고 실직자가 폭증하면서 취업률이 곤두박질쳤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와 홍수, 환경오염, 교통난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빌바오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1980년대 말 반전이 일어난다. 바스크 자치정부와 비스카야주 정부, 빌바오시는 대대적인 도시재생 장기사업에 착수해 도로와 항만, 다리, 공항 등 빌바오의 사회기반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가운데 1997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거짓말처럼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 성공했다.

존재감을 상실한 도시에서 일약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표준모델로 화려하게 부활한 빌바오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문화중심 도시재생 사업과 장기 프로젝트

빌바오는 7개 지방으로 이뤄진 바스크 자치정부의 중심 도시로 비스카야주의 도청소재지다. 1300년 비스카야주의 자치도시로 독립했으며 18세기 스페인 식민지 무역을 통해 상업 도시로 번성했다. 산업혁명 이후 광산개발의 호재로 철강·조선업의 강자로 부



상하며 20세기 들어 스페인 제1의 공업도시, 산업도시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까지 빌바오 경제를 떠받치던 중공업의 양대 축, 철강 조선업이 무너지며 빌바오는 도시경계가 마비됐다. 실업률이 35%까지 치솟고 도시인구와 기업의 외지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가 하면 1983년에 도시를 덮친 대홍수와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전염병의 확산, 도심 교통 정체현상에 더해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등 정치적인 불안감까지 쓰나미로 밀려오면서 도시가 존폐기रो에 몰렸다.

궁즉통(窮則通), 절박하면 길이 보인다고 했던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에 빠진 빌바오 회생 작전이 시작됐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범빌바오 차원에서 25년 장기계획으로 단계별 종합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정책발굴 조직과 사업 실행조직을 구성해 진행됐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단체인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에서 도시 비전과 다양한 전략을 구상했으며 중앙정부와 바스크 자치정부, 빌바오시 당국과 빌바오 시민단체 관계자

들로 구성된 '빌바오 리아 2000'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갔다. 도시 비전은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전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가장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 모범사례

실행 방안으로는 먼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과 공항, 다리,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네르비온 강변 아반도이바라(Abandoibarra) 일대의 항만시설과 공장들을 이전하고 산책로 신설과 수질 개선, 공원 등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환경 생태계 복원, 대학 캠퍼스, 도서관, 놀이터, 콘서트홀 등 문화 및 교육시설 유치, 대형 복합쇼핑몰 신축과 보행자 전용 공간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편의성을 도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갔다. 아울러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래전 운행 중단된 도로 위 레일 전차인 트램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 공업도시에서 글로벌 문화도시로 변신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빌바오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경제를 회생시키는 건인차가 됐기 때문이다.

도시 생태계를 이룰 제반 시설들을 친환경적이면서 시민 친화적으로 설계한 가운데 금세기 최고의 건축물로 찬사받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빌바오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가장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의 모범사례로 기사화됐던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효과 제고에서 파생되는 소득과 소비, 투자의 선순환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물적 토대는 장기적으로 고예산이 소요되는 사회 기반시설 및 환경·생활편의 인프라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버팀목이다.

여기에 더해 편안한 휴식을 통한 삶의 의욕 고양과 영혼을 정화하는 문화적 자긍심을 충족시키는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뒷받침될 때 인간다운 삶의 필요충분조건은 완성된다. 1980년대 말에 시동을 걸어 20년 넘게 꾸준히 가동한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 빌바오가 그렇게 환골탈태했다.

### 달라진 빌바오와 세계적인 문화도시

빌바오 시민들에게 네르비온 강은 식수의 근원이자 생활용수의 공급처다. 오염된 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화시설 설치, 강변을 따라 이어진 쾌적한 산책로와 공원 조성, 보행자 다리 건설 등으로 네르비온 강이 되살아났고 철강 조선업의 쇠락으로 흉물로 변해버린 공공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학 캠퍼스와 공공도서관, 대형쇼핑몰, 공항, 지하철, 트램 등 도시 곳곳에 들어선 교육, 생활, 교통시설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고 시민들의 편의성과 주거 의식 만족도를 몰라보게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빌바오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예술이 도시를 바꾼다', '미술관 하나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는 말은 빌바오 구겐하임에서 비롯됐다. 빌바오 구겐하임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수많은 실행 방안 중 하나로 기획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도시 비전의 방향과 색깔을 좌우할 지렛대로 미술관 유치



5 4 아반도이바라 도시재생 사업 후 새롭게 들어선 녹지공간. 녹지공간 위로 빌바오 구겐하임이 보인다. ©Xabier 5 2011년 빌바오 구겐하임 인근에 완공된 높이 165m의 이베르드롤라 타워. 스페인 전력 회사 사옥으로 빌바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Naotake Murayama from San Francisco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파리와 루브르 박물관의 관계처럼 빌바오 하면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을 떠올리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이어지는 <하> 편에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탄생 배경과 유치작전, 성공 비결과 경제적 가치 등을 소개한다.**

설정됐다는 점, 그 결과 21세기 도시재생의 길잡이로 조명받고 있다는 점, 빌바오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 도시인구의 세 배와 맞먹는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 지역경제를 단숨에 회생시켰다는 점, 결론적으로 미술관의 문화산업 가능성을 확인시킨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리와 루브르 박물관의 관계처럼 빌바오 하면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을 떠올리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이어지는 <하> 편에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탄생 배경과 유치작전, 성공 비결과 경제적 가치 등을 소개한다. ◎



● **박인권 문화 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 <미술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 등이 있다.

# 양반과 서민의 문화 한데 어우러지다



▶ 송순섭 명창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판소리 무대를 펼치고 있다.

▶▶ 고 성창순 명창이 창덕궁 낙선재 앞마당에서 심청가를 부르고 있다.

| 문화재청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2022년 6월 '판소리가 중국 문화유산? 이게 무슨 소리!'라는 제목의 누리소통망(SNS)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게시했다. 반크는 중국 바이두백과(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가 운영하는 일종의 위키백과) 등의 누리집을 확인하면 판소리가 조선족 문화유산이어서 중국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소리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은 유네스코 기록만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전승된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최근 김정민 명창이 이탈리아 밀라노 3대 극장으로 꼽히는 달베르메 극장에서 적벽가 완창 공연을 하는 등 판소리가 우리나라 전통의 소리로 세계화하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다.

## 17세기 서남지역 굿판에서 유래 추정

판소리는 '판'과 '소리'의 합성어다. 흔히 '판을 깔다'고 할 때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의미의 '판'에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더해진 말이다. 판소리에선 소리꾼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노래)과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적절히 섞어 구연한다.

판소리의 정확한 시작은 알려지지 않지만 대체로 17세기 우리나라 서남지역 굿판에서 벌어진 무당의 율조림을 새롭게 표현하면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판소리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 시대 상황 등도 대체로 조선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판소리 사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영조 30년(1754) 유진한이 한시로 적은 만화집에 수록된 <만화본춘향가>다. <만화본춘향가>는 200구의 한시로 된 춘향가로 현재까지 알려진 춘향전 이본 중 가장 오래됐다.

대중예술인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뿐만 아니라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된다. 반드시 극에 호응하는 관객이 있어야 판소리가 성립한다. 판소리 3대 요소에 관객이 포함되는 이유다. 판소리의 사설 기능은 바로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있다.

창과 아니리로 구성된 판소리는 레지타티보(대사 형식의 노래)와 아리아(서정적 가락의 독창곡)로 이뤄진 서양의 오페라와 곧잘 비교되는데 오페라는 특정 작곡가가 있지만 판소리는 여러 참여자



판소리의 대표 격인  
춘향가는 사설의  
문학성이나 소리의  
음악성에서 가장  
예술성이 높다.  
사설의 길이도 가장  
길어서 한 마당을  
모두 부르는 데  
짧은 건 5시간, 긴 건  
8시간이 걸린다.

의 소리가 모여 완성되는 장르라는 점에서 그 예술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 판소리는 양반과 서민의 사고 및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전통을 지니고 있다. 민중이 구경꾼이고 광대가 연희자인 판소리는 솔직하고도 해학적인 인간관과 미의식을 담고 있다. 하층집단이 제작했어도 양반사회는 물론 왕실에서도 유행했다. 모흥갑이라는 명창은 조선시대 현종 때 궁중으로 초대돼 적벽가를 불러 그 소리에 감동한 현종이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중2품 벼슬을 하사하기도 했다.

#### 지역 특성과 계보 따라 창법 달라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라 창법이 다르다. 전라도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의 판소리는 각각 동편제와 서편제라고 부른다. 서편제는 1993년 최초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 익숙하다.

경기도와 충청도 판소리는 중고제로 불린다. 남성적인 동편제는 맑고 씩씩한 느낌의 우조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며 소리의 끝을 탁탁 끊는다.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는 창법을 사용해서 템

포가 빠르고 발림(소리의 극적 전개를 돕는 몸짓이나 손짓)이 적다.

여성적인 서편제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의 계면조를 많이 쓴다.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교와 수식이 많다 보니 박자가 느린 대신 발림이 넉넉하고 많다. 그래서 서편제가 동편제보다 소리꾼과 고수의 연행적 요소가 발달했다. 책을 읽듯이 담담한 맛의 중고제는 감정이입을 최소화한 소박한 느낌으로 목소리가 풍부한 소리꾼이 부르기 좋은 판소리로 분류된다.

판소리 발생 초기엔 한 마당이 길지 않아 판소리 열두 마당이라고 해서 춘향가와 심청가, 수궁가 등이 체계 없이 전승됐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판소리 작가인 신재효가 충·효·의리·정절 등 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심청가와 적벽가,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변강쇠타령 등 여섯 마당으로 정리해 판소리의 창극화와 함께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했다.

오늘날엔 변강쇠타령을 제외한 다섯 마당이 전해진다. 판소리의 대표 격인 춘향가는 사설의 문학성이나 소리의 음악성에서 가장 예술성이 높다. 사설의 길이도 가장 길어서 한 마당을 모두 부르는 데 짧은 건 5시간, 긴 건 8시간이 걸린다. ◎



● 김정필  
〈한겨레〉 기자



## 시원한 육수에 텀병

／ 물 ／ 회 ／

며칠째 습하고 끈끈하다. 차라리 불별이 나으려면 문틈으로 스미는 물기 품은 공기는 손사래에도 끄떡없다.

밥은 먹어야겠기에 냉음식을 찾아 헤멘다. 냉면, 콩국수, 메밀국수. 이때 물회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낸다. 잘게 썬 꼬들꼬들한 생선 살이 매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육수 안에 웅크리고 있다.

물회는 생선회를 물에 말아 먹는, 그래서 더욱 당당한 '우리식 생선회 문화'다. 생선회(사시미[刺身])의 원조를 주장하는 일본에도 물회 같은 건 없다. 국물을 특별히 챙기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물회가 존재한다. 여름에 차가운 것을 즐기는 문화도 물회의 인기에 한몫했다.

그저 물에 양념장을 풀고 날생선을 썰어 넣은 것 같지만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지역별로 강릉식이 다르고 포항식이

다르다. 제주식, 통영식, 장흥식 등도 있다.

저마다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도 제각각이다. 어부들이 일을 나갔다가 뱃전에서 생선에 찬밥을 섞어 물에 말아 먹던 것에 원조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자 마다 품은 바다가 다르니 사는 생선도 다르고 선호하는 양념과 입맛에 기인하니 지역에 따른 특성만큼은 선명하다.

물회로 유명한 곳은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이다. 광어나 가자미 등 가늘게 썬 흰살생선에 초고추장과 김칫국, 설탕 등을 섞어 마무리한 육수를 붓는다. 기본적으로 명태 육수를 쓰는 집도 있고 동치미를 섞어내는 집도 있다. 이름은 강릉식이지만 고성부터 삼척까지 강원도 동해안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 동해안에는 오징어물회와 골뱅이물회도 있다. 졸깃한 살점이 차가운 육수와 만나면 더욱 존득해지며 진한 풍미와 차진 식감을 낸다. 냉국수처럼 국수사리를 넣어도 되고 찬밥을 텀병 말아도 좋다.



[전문] 무침회

**물회는 생선회를  
물에 말아 먹는, 그래서  
더욱 당당한 '우리식  
생선회 문화다.  
국물을 특별히 챙기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물회가 존재한다. 여름에  
차가운 것을 즐기는  
문화도 물회의 인기에  
한몫했다.**



● 이우석  
농고먹기연구소장

포항식 중에서는 '북부시장식'이 다소 특이하다. 죽도시장에도 물회집이 많지만 북부시장 앞 물회를 파는 집들은 사실 무침회(비빔회)를 판다. 물회는 이 무침회에서 나온다. 가장 큰 특징은 무침회의 고추장 양념에 육수를 붓는 대신 맹물(냉수)을 그대로 넣어 먹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어와 콩치, 전어, 멸치, 송어 등 등푸른생선을 주로 쓴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맹물을 쓰지만 고추장 맛이 끝내주니 괜찮다. 집집마다 고추장에 마늘과 참기름 등을 넣고 숙성한 장을 따로 담가 쓰는데 이 맛이 매우 좋다.

맛이 진한 등푸른생선 살에 해초와 푸성귀를 듬뿍 곁들인 무침회를 먹다가 반쯤 비우고 나면 시원한 물을 붓고 밥을 말아 후루룩 마시듯 즐기면 된다. 부드러운 생선 살이 아삭한 채소와 매콤한 장맛에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 비릴까 싶어 등푸른생선이 싫다면 가자미로만 넣어달래도 된다.

제주에선 자리돔이나 한치를 물회로 즐기는데, 식용 빙초산(아세트산)을 넣어 시큼하게 먹는 것이 특징이다. 자리물회는 제주 사람들의 여름철 별미다. 여름엔 성계를 넣어주기도 한

## 전국의 물회 맛집



★포항식 회무침 물회 북부시장 앞 명천회식당은 특제 고추장이 맛이 좋아 따로 장을 사 가는 이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흰살생선이 아니라 청어, 콩치, 멸치 등 등

푸른생선을 주로 쓴다. 포항 이외에선 본 적이 별로 없는 구성이다. 등푸른생선은 특유의 기름 맛이 진하다. 양도 푸짐하다. 밥에 쓱쓱 비벼 먹는 무침회(비빔회)도 구성은 같다. 비빔회로 먹다가 나중에 물을 말아도 된다.



★된장물회 전남 장흥에는 된장에 말아내는 물회집이 많다. 된장물회는 고추장물회처럼 맛이 강하지 않아 좋다. 갈따구(농어 새끼의 방언) 등 제철 잡어에 신김치와 아삭한

열무, 된장을 넣고 시원한 얼음냉수에 말아 먹는다. 여름엔 생선이 빨리 상하는 것도 방지하고 식감도 좋으라고 회를 떠서 살짝 뜨거운 물을 부어 걸만 익힌 다음 물회로 낸다. 상심회마을(장흥읍), 삭금횃집(이하 회진면), 청송횃집, 우리집횃집, 삭금 남촌횃집 등에서 판다.

★동해안식 강원도 속초 영랑동 봉포머구리집은 일명 속초 3대 물회집으로 손꼽힌다. 전국적으로 유명해 점심시간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 특히 전복해삼물회는 각종 과일과 매실 진액, 약초 등을 넣어 만든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육수에 광어와 가자미, 해삼, 멍게 등 10여 가지 싱싱한 해산물을 푸짐하게 말아낸다. 오독 씹히는 해삼과 쫄깃한 전복, 바다 향 가득한 멍게와 향긋한 성게알, 활어회까지. 10여 가지 해산물은 골라 먹어도 맛있고 함께 떠먹어도 좋다.

다. 전남 장흥은 초고추장 대신 구수한 된장을 넣은 된장물회를 먹는데 이게 또 별미다. 자극적이지 않고 감칠맛이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배어든다. 한우를 넣은 한우물회 역시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경남 통영은 앞바다에서 주로 양식하는 멍게(우렁쟁이)나 굴로 물회를 즐기는 것이 유별나다. 전남 고흥에도 겨울철 잡은 굴을 살짝 삶아 멸건 물회식으로 즐기는 피굴이 유명하다. ●

공감 리뷰



**661호** 우체국에 우편물을 맡기다가 우연히 <공감>을 만났습니다. 가볍게 읽다가 <공감>이 재미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리뷰까지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는데 이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누리호가 실패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나 싶었지만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주 강국에 다가간 멋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아자아자 파이팅!  
이윤미 청주 청원구 오창읍



**662호** '코리아돌레길을 찾아서-풍성함이 넘쳐나는 여름의 낭만'을 읽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지요. 충남 서천에 이렇게 볼 것과 체험할 것이 많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제가 가본 곳이라고는 춘장대 한 곳만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추천해준 장소와 먹거리들을 참고해서 지인들과 풍성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행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고송옥 서울 성동구 무학로

사진 공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야간 자전거 타기가 다시 시작된 첫날. 이렇게 멋진 노을을 선물 받았습니니다. 7월의 크리스마스인 거죠. 회원들 모두 감탄사를 연발!! 딱 좋은 시간에 마침 이곳을 지나게 돼서 감사한 순간을 공유합니다. 이곳은 울산 태화강 '노을 맛집' 중 하나인 명촌교입니다. 태화강변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타러 오세요.  
박진아 울산 남구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http://gonggam.korea.kr)

[content.v.kakao.com/3094](https://content.v.kakao.com/3094)

[blog.naver.com/mcst\\_pr](http://blog.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https://www.facebook.com/wegonggam)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https://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http://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27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mailto: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 기프트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전이!  
안심이! 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  
(다리→팔→얼굴→가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평 때, 음주 후는  
수영 NO!



수영능력 과신 NO!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Yes!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 신고!





생태관광 국가숲길



# 울진금강 소나무 숲길

자연과 공존하며 우리의 생명인 산과 숲을  
지킬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 집니다.



울진금강 소나무숲길

ULJIN PINE TRAIL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7개 코스 총 79km로 예약 탐방제로만 운영되며 한 개 코스에  
하루 최대 80명만 걸을 수 있다. 2021년 11월 산림청에서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문의 :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 0541781-7118, 한국동상·브레킹지원센터 042620-6352